

바로크 독일 정원에서 생성된 음악문화*

조 연 숙
(경북대학교 강사)

1. 서론

“시작하다, 있다, 발생하다 그리고 유래하다”라는 어원적 의미와 “인간에 의해 창조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진 자연(라. natura)¹⁾의 반대어인 문화(라. kultura)는 “경작하다, 편집하다, 주문하다 그리고 관리하다”라는 어원적 의미와 함께 인위적인 행위로 완성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²⁾. 이에 문화는 시공간적으로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집단의 소통력을 담은 생활양식으로 탄생한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과 지역적 특징에 의해 내용적 변화를 하며 다종다양한 영역에서 그 생명력을 이어오고 있다. 그중 음악문화는 과거부터 자연에서 이루어진 의식이나 연회 또는 사고 때 음악을 동반하면서 생활양식을 다채롭게 이끌었다. 이런 사실들은 과거의 그림이나 벽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기에 인간은 자연 속에서 음악과 더불어 즐거움과 행복함을 즐기며 자연이란 공간을 인간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장소로 인식되어왔고 지금도 유효하다. 그래서 자연은 인간의 생활공간에서 울타리나 돌담으로 둘러놓은 정원³⁾으로 들어서고,⁴⁾ 그 공간에 귀족들은 음악문화를 담기 시작한다.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7090932).

1) Winfried Böhm, “Kultur,” in *Wörterbuch der Pädagogik*, ed. Wilhelm Hehlmann (Stuttgart: Alfred Kröner, 1994), 411-412.

2) Böhm, “Kultur,” 411.

3) 정원(Garten)은 나긋나긋한 여린 가지(Gerte)라는 어원적 의미를 가지며 또한 나긋나긋한 여린 가지는 일반적으로 버드나무나 개암나무 가지를 뜻해 어원적 의미와

이에 독일 귀족들은 바로크 시기에 프랑스 정원 양식을 수용하면서 자연을 담아 완성된 궁정 정원에서 다양한 음악회나 음악활동으로 생활문화에 변화를 추구한다. 그리고 그들은 정원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를 계획하며 다양한 정원의 음악문화를 생성시킨다. 이런 점에서 귀족계층이 독일 정원문화를 이끄는 바로크 시기라는 점과 실내음악이 등장하기 전인 실외에서 즉 정원에서 생성되는 음악문화는 바로크 음악과 무관하지 않음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어 바로크 독일 정원에서 생성된 음악문화가 새롭게 주목된다.

본 연구는 먼저 바로크 독일 정원의 탄생배경을 이해하고 바로크 독일 정원의 특징을 도출하려고 한다. 따라서 당시 귀족들이 정원에서 예술을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나 자연과 어우러진 음악문화를 즐기기 위해 정원이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밝히면서 바로크 독일 정원이 갖는 특징을 조사할 것이다. 이어 바로크 정원양식을 담은 독일 정원이 곳곳에 들어서면서 음악회나 음악활동이 어떻게 보급되었는지에 관한 연구로 바로크 독일 정원의 음악문화에 대한 생성과정을 알아보고 계속해서 독일 정원의 음악문화에서 나타난 특징을 연구하여 바로크 독일 정원에서 생성된 음악문화의 특징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바로크 독일 정원에서 생성된 음악문화가 갖는 사회적 의미를 모색하기 위해 당시 사회에서 정원문화가 어떻게 활용되어 어떤 사회적 가치를 가져다주었는지에 관한 연구도 함께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계속해서 선행연구 상황을 점검해보면, 바로크 독일 정원문화에 대한 체계적 접근 작업은 최근에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특히 바로크 정원문화에 관한 연구는 아직은 지엽적으로만 이뤄진다. 그리고 바로크 독일 정원에서 생성된 음악문화에 대한 심층 분석연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원의 예술사에 관한 연구에서 정원 중심으로 진행된 예술적 내용이 개별적으로 연구되었

함께 살아 있는 나뭇가지가 영긴 덩불로 둘러싸인 평야 즉, 울타리를 두른 토지나 지면으로 해석될 수 있다. Herbert Jankuhn, Rudolf Schutzeichel und Fred Schwind, *Das Dorf der Eisenzeit und des frühen Mittelalters: Siedlungsform, wirtschaftliche Funktion, soziale Struktur. Bericht über die Kolloquien der Kommission für die Altertumskunde Mittel- und Nordeuropas in den Jahren 1973 und 1974* (Göttingen: Vandenhoeck und Ruprecht, 1977), 27.

- 4) Ben Whitaker and Kenneth Brown, 『우리의 공원』(*Parks for People*), 김수봉 역 (서울: 박영사, 2014), 24.

다. 먼저 독일정원들의 시대적 변천과정과 조경에 관한 연구를 증점적으로 제시 하면서 정원에 설치된 조형물 또는 전시된 예술품을 한네보(Dieter Hannebo, 1923-2007)와 호프만(Alfred Hoffmann, 1898-1987)이 포괄적으로 연구했다.⁵⁾ 그리고 음악도상학자인 잘멘(Walter Salmen, 1926-2013)은 고대 바빌론부터 19세기까지의 음악과 춤 그리고 대화가 자유롭게 어우러진 일부 정원 그림을 발췌해 그림에서 담고 있는 음악 이야기로 정원음악을 다루었다.⁶⁾ 계속해서 조경학자 고정희는 유럽에 있는 바로크 정원유형에 대해 2008년 출판된 저서 『바로크 정원 이야기』에서 소개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주제와 근접한 방식으로 다룬 19세기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투영하여 포괄적으로 생활음악문화를 이론적으로 재조명하면서 19세기 음악문화와 독일정원에서 나타난 시민들의 음악활동에 대한 연구는 2017년 『음악이론포럼』 24집 제2호에 “19세기 독일 정원음악”이라는 논문에서 다뤄졌다.⁷⁾ 그리고 제시된 논문에서는 바로크 독일 정원의 음악문화에 대한 몇 가지 이론적 단초를 파악할 수 있는 후속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19세기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투영하여 ‘학문적 연구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의 음악문화를 담은 독일 정원음악을 체계적으로 재조명하면서 귀족들이 소유한 바로크 독일 정원음악문화와의 대화 가능성을 암시하는 논거들을 던져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 선행연구들의 기초 위에 바로크 독일 정원에서 생성된 귀족들의 음악문화를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연구하여 바로크 음악사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본 바로크 독일 정원에서 생성된 음악문화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조명하고자 한다.

5) Dieter Hannebo und Alfred Hoffmann, *Geschichte der deutschen Gartenkunst, Gärten des Mittelalters*, Band 1 (Hamburg: Broschek, 1962); Dieter Hannebo und Alfred Hoffmann, *Geschichte der deutschen Gartenkunst, Der architektonische Garten*, Band 2 (Hamburg: Broschek, 1965); Dieter Hannebo und Alfred Hoffmann, *Geschichte der deutschen Gartenkunst, Der Landschaftsgarten*, Band 3 (Hamburg: Broschek, 1965) 참조.

6) Walter Salmen, *Gartenmusik, Musik-Tanz-Konversation im Freien* (Hildesheim: Olms, 2006) 참조.

7) 조연숙. “19세기 독일 정원음악,” 『음악이론포럼』 2 (2017), 9-35 참조.

II. 본론

1. 바로크 독일 정원의 탄생배경 및 특징

본 단락에서는 당시 귀족들이 정원에서 예술을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나 자연과 어우러진 음악문화를 즐기기 위해 독일 정원이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밝히면서 바로크 독일 정원이 갖는 특징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1.1. 바로크 독일 정원의 탄생배경

절대왕정 프랑스에 루이 14세(Louis XIV, 1638-1715)가 등장하면서 모든 영역에서 즉 음악, 미술, 문학, 예술, 연극, 의상, 건축 그리고 정원에 이르기까지 프랑스 궁정의 생활문화는 화려하게 변화되고, 그 변화의 중심지는 바로크의 정형화된 양식을 담은 베르사유 궁정이다. 베르사유 궁정 테라스 앞에 펼쳐진 정원과 운하는 섬세하게 다듬어진 자연으로 웅장함과 정교함 그 자체이다. 넓은 잔디가 초록색 색종이를 올려놓은 것처럼 중앙에 놓여 있고 양쪽으로 뻗뻗하게 다듬어진 수목 벽들이 도미노처럼 조각상과 함께 길게 늘어져 있다. 그리고 테라스 왼쪽에는 잔디 위에 자수를 놓은 것처럼 예쁜 문양을 가진 오렌지 정원이 있고 그 정원은 조경가들이 마치 땅에 그림을 그린 작품과 같다. 당시 대운하를 마주하는 넓은 테라스 아래, 빈 도화지 같은 사각형 단위인 파르테르(parterre)가 다양한 것을 즉 분수, 화단, 잔디밭 등을 담아 완성되었고 그 완성된 개별 파르테르를 가지고 다시 모양을 낸 정형화된 정원에서 화려함을 즐기는 태양왕 루이 14세는 문학과 음악가를 옆에 두고 귀족들과 함께 무도회와 연극 및 음악회 등으로 정원의 음악문화를 찬란하게 이끌었다. 그 예로 1674년 7월 19일에 몰리에르(Jean-Baptiste Poquelin, 1622-1673)⁸⁾의 《상상의 병》(*Malade Imaginaire*) 작품이 벽에 동굴처럼 둥글게 파서 조각상을 넣어 만든 그로테(grotte)를 무대 뒷배경으로 한 베르사유 정원 임시무대에서 상연하는 것을 시작으로 6일 동안 화려한 연회와 음악 축제가 계속 진행되었으며 이런 베르사유 정원축제와 의식의 화려함은 유럽 귀족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으로 번져갔다.⁹⁾ 그리고 정원은 연주장소로 활용되면서 춤을 좋아하는 루이

8) 본명이며 통칭으로 Molière.

14세의 취향을 반영한 발레, 가면무도회, 극 무대공연 등의 다채로운 정원문화가 펼쳐졌다.¹⁰⁾ 이처럼 군주가 머무는 곳의 예술과 건축은 군주의 성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가 선호하는 의미와 화려함을 반영하며 신하들의 자랑스러움 즉 같이 느낄 수 있는 소속감을 채워주기 때문에 루이 14세는 문학적 그리고 음악적 작업을 담은 축제를 끊임없이 개최하면서 베르사유 정원의 평판을 높이고 동시에 베르사유 정원을 축제의 주요 장소로 유럽 전역에 알렸다.¹¹⁾ 특히 2만여 명이 거주할 수 있을 정도의 대규모로 잘 알려진 베르사유 궁정의 화려한 연회는 정원 구석구석 조각상과 함께 서 있는 수목 벽인 보스케(boskett)를 공연이 있을 때마다 임시무대 뒷배경으로 활용하여 좋은 음향을 들려주려는 시도와 함께 음악회와 무대극들을 자주 올리며 그 화려함이 날로 더해가 결국 유럽의 귀족들에게 정원 음악문화의 모델로 다가간다. 이에 독일 궁정은 당시 프랑스 궁정과 왕실 간의 정략결혼으로 어느 나라보다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베르사유 정원문화에 폭 빠져있었다. 특히 조카인 루이 14세의 남동생 오를레앙(Philippe d'Orléans, 1640-1701) 공작의 두 번째 아내 리젤로테(Elisabeth Charlotte Liselotte Prinzessin von der Pfalz, 1652-1722)를 1679년 방문하면서 베르사유 정원에 크게 감동한 하노버 궁정의 조피(Sophie Prinzessin von der Pfalz, 1630-1714) 왕비와 그녀의 딸인 베를린 샤를로텐부르크 궁전의 조피 샤를로테(Sophie Charlotte von Hannover, 1668-1705) 선제후비는 베르사유 정원양식과 정원의 음악문화를 그들의 정원으로 옮겨 놓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시도한다. 그래서 독일 바로크 정원의 건립은 먼저 하노버 조피 왕비의 지극한 정원 사랑으로 정형화된 베르사유 정원처럼 하노버 헤렌하우젠 정원에서 시작되고, 특히 문학과 연극 그리고 음악에 많은 관심을 가진 그녀가¹²⁾

9) Michael Petzet, "Die Thetisgrotte in Versailles," in *Die Gartenkunst des Barock*, ed. Michael Petzet (München: Karl M. Lipp-Verlag, 1997), 43.

10) Florian Fiedler, "Dezallier D'argenville und seine Bedeutung für die Gartendenkmalpflege," in *Die Gartenkunst des Barock*, ed. Michael Petzet (München: Karl M. Lipp-Verlag, 1997), 165.

11) Ute Jung-Kaiser und Annette Simonis, *Die verzaubernde Kunstwelt Ludwigs XIV. - Versailles als Gesamtkunstwerk* (Hildesheim: Olms, 2015), 9-11.

12) Heidrun Siller: "Sophie, Kurfürstin von Hannover," in *Neue Deutsche Biographie* (NDB), Band 24 (Berlin: Duncker und Humblot, 2010), 588.

프랑스 정원예술사 샤보니에(Martin Charbonnier, 1655-1720)를 1683년에 하노버 궁정에 채용하여 함께 정원을 가꾸면서 1689년부터 노천극장을 만들기 위한 공사가 시작되어 3년 후에 무도회장 옆에 완공된다.¹³⁾ 그리고 헤렌하우젠 궁정의 정원은 4개의 정원 즉 바로크 대정원, 베르크 정원, 게오르겐 정원 그리고 벨펜 정원으로 구성되어 앙상블 정원이라는 명칭도 얻으면서 큰 규모의 정원으로 발전되지만, 바로크 대정원과 베르크 정원만이 바로크 정형화된 정원으로 대표성을 띤다. 나머지 두 정원은 고전시기에 등장하는 풍경식 정원 양식처럼 넓은 잔디밭 위에 펼쳐진 자연스런 풍경을 담은 구조이다. 그리고 조 피 왕비가 베르사유 정원을 방문했을 때 좋아했던 정원 요소로 일자로 된 가로수길, 정리된 공간들, 그늘을 제공하는 거목 그리고 실용적이고 아름다운 유실수와 조화롭게 심어진 꽃들 등이 있었고 이 모든 것을 그녀는 헤렌하우젠 궁정에 건립된 정원 중에 바로크 대정원에 옮겨 놓는다.¹⁴⁾ 이를 기반으로 독일 베를린, 뮌헨, 드레스덴, 에어랑엔, 뷔르츠부르크, 카셀 그리고 루드비히스부르크, 슈베칭엔 등에 계속 바로크 정형화된 정원들이 들어서면서 귀족들이 생활문화를 펼친 '장'인 정원을 본격적으로 가꾸기 시작한다.

1.2. 바로크 독일 정원의 특징

독일의 정형화된 정원은 화려한 베르사유 궁정의 정형화된 정원을 모델로 건립된 하노버 헤렌하우젠 궁정 정원으로 시작하고 이에 따른 음악문화도 수용하지만, 독일 정원구조에 적합한 음악문화를 펼치기 위해 베르사유의 정원에서 개최되는 음악회 때 설치된 임시무대가 아닌 노천극장을 만든 특별함이 있었고 또한 독일 최초의 노천극장이라는 점에 의미가 크다. 이를 시작으로 독일에 정형화 양식을 담은 정원들이 바로크 정원으로 들어서고 이런 바로크 정원의 양식적 특징인 정형화 요소들과 독일 정원의 특별함인 야외극장이나 야외무대 또는 야외무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정자가 어디에 설치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13) Katharina Peters, *Die Hofgärtner in Herrenhausen* (München: AVM, 2011), 74.

14) 고정희, 『바로크 정원이야기』 (서울: 나무도시, 2008), 179-180.

먼저 독일 연방주의 하나인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주에는 슈베칭엔 성 공원¹⁵⁾(Schlosspark Schwetzingen)과 바이커스하임 성 정원(Schlossgarten von Schloss Weikersheim) 그리고 루드비히스부르크 성 공원(Schlosspark Ludwigsburg)이 있다. 당시 슈베칭엔 성에는 다양한 정원들이 공존하지만, 바로크 정원의 양식을 담은 정원은 프랑스 정원뿐이다. 이 정원은 기하학적 형태로 구조되고 그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간을 자르는 축과 원형이며 정원의 앞부분에는 오렌지 정원, 자수를 놓은 듯 꽃으로 장식한 화단인 자수화단 파르테르와 수목 벽이 들어서고 성 뒤쪽에는 호수가 그리고 앞쪽 테라스에는 향아리, 금박을 입힌 두 개의 아탈란테 여신의 조각상이 배치되어 있고 파르테르 중앙에 놓인 둥근 아리온 조각상을 가진 분수대, 그리고 아폴로 성전 앞에는 분수대와 함께 수목 벽을 양쪽으로 두고 야외무대가 건립되어있다.¹⁶⁾ 계속해서 1708년에 완성된 바이커스하임 성은 건축가인 칼 루드비히(Carl Ludwig von Hohenlohe-Weikersheim, 1674-1756) 백작의 의견을 반영하여, 남쪽에 휴식할 수 있는 정원인 유원지가 펼쳐지면서 가로수길, 꽃 테두리 그리고 분수대의 수경, 화분 식물로 장식되었고 이어 대규모 오렌지 정원은 타우버 계곡의 전망과 조화로워 그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곳곳에 고대 신, 계절 및 기타 많은 상징적 인물의 조각품을 설치하여 바로크 정원의 진수를 보여준다.¹⁷⁾ 이어 루드비히스부르크 성 공원은 에버하트 폰 루드비히(Eberhard von Ludwig, 1676-1733) 공작에 의해 1704년 초부터 건축되기 시작해서 공작이 죽은 후에도 계속 확장 변화되면서 광대한 성 공원으로 완성된다.¹⁸⁾ 당시 베르사유 궁정과 유사한 구조로 건립된 이 공원은 장엄

15) 에워싼 곳(Gehege)이라는 어원적 의미를 가진 공원(Park)은 자유로운 토지인 자연과 상반된 울타리를 두른 지리적으로 제한된 토지라는 점이 정원(Garten)과 공통적이지만 차이점은 원예의 규칙에 따라 녹지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August Grisebach, *Der Garten* (Leipzig: Klinkhardt und Biermann, 1910), VI.

16) Johann Michael, Zeyher, *Beschreibung der Gartenanlagen zu Schwetzingen* (Mannheim: Bürgerhofspitals-Buchdruck, Ca. 1820), 5-31.

17) Landesbetrieb Vermögen und Bau Baden-Württemberg, *Schloss und Schlossgarten Weikersheim Zeitschrift* (Bruchsal: Staatliche Schlösser und Gärten Baden-Württemberg, 2020), 3-15.

18) Klaus Merten, "Die Baugeschichte von Schloss Ludwigsburg bis 1721," in *Schloss Ludwigsburg: Geschichte einer barocken Residenz. Silberburg,*

한 유럽 궁정 중 하나로 간주되며 특히 궁전의 북쪽과 남쪽에 광대한 정원이 펼쳐지고 극장과 오렌지 정원, 자수화단, 파르테르, 분수대, 인공폭포와 그로테, 통통한 남자아이 모습을 담은 조각작품인 푸토(putto) 그리고 정자 등이 설치되면서 바로크 정원의 양식적 요소를 보여주고 있다.¹⁹⁾ 끝으로 슈베칭엔 성 공원과 루드비히스부르크 성 공원에는 야외무대와 야외무대로 활용될 수 있는 정자가 건립되어있다.

이어서 바이에른(Bayern)주에 속한 정원으로는 호헨알트하임의 성 정원(Der Schlossgarten von Schloss Hohentalheim), 에어랑엔 성 정원(Der Schlossgarten in Erlangen), 뉘른베르크의 헤스페리드 정원(Die Hesperidengärten in Nürnberg), 뷔르츠부르크 주거 정원(Garten der Würzburger Residenz), 오버슐라이스하임의 슈라이스하임 성(Schloss Schleißheim in Oberschleißheim) 그리고 뮌헨의 님펜부르크 성 공원(Schlosspark Nymphenburg in München)이 있다. 호헨알트하임의 성 정원은 1710년에 외팅엔 에른스트 2세(Albrecht Ernst II, 1669-1731) 후작의 부탁으로 건축가 베링어(Wilhelm Heinrich Behringer, 1651경-1716)에 의해 설계되었다.²⁰⁾ 본관 건물을 중심으로 궁정은 안뜰과 정원으로 나뉘며 정원은 두 개의 서로 다른 면을 즉, 전면은 엄격하게 구조화되어 안뜰을 향하고 다른 한 면은 좀 더 사적인 정원 공간으로 자수화단과 꽃으로 구성된 파르테르를 품으며 승마장, 오렌지 정원, 온실 그리고 너도밤나무와 격자 나무가 늘어선 가로수길과 함께 바로크 정형화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²¹⁾ 계속해서 작은 정원으로 시작된 에어랑엔 성 정원은 1700년 이후에 브란덴부르크 출신의 조피(Elisabeth Sophie, 1674-1748) 후비의 영향으로 숲과 성곽 정원으로 확장되어 위그노 분수, 많은 조각상, 야외극장, 장식용 자수화단이 있는 정원, 바로크 양식의 전형적인 가로수길, 궁전의 잔디밭, 오렌지 온실, 성 교회를 둘러

ed. Staatliche Schlösser und Gärten Baden-Württemberg (Tübingen: Silberburg-Verlag, 2004), 9.

19) <https://www.blueba.de/en/history.html> [2022년 11월 6일 접속].

20) Volker Volckmar, *Aus dem Land der Grafen und Fürsten zu Oettingen* (Wallerstein: Fürstlich Oettingen-Wallersteinsche Gesamtverwaltung, 1995), 384.

21) Volckmar, *Aus dem Land der Grafen und Fürsten zu Oettingen*, 391.

싼 큰 광장의 잔디밭, 곳곳에 배치된 수많은 조각품, 분수대가 있는 유원지, 텃밭, 약초원 그리고 과수원 등을 품고 있고 성 정원 벽 바깥쪽에는 정원의 경계로 숲에서 잘린 세 개의 가로수길도 놓여 있다.²²⁾ 이어 뉘른베르크의 헤스 페리드 정원은 과거 과수원, 채소정원, 허브정원 등의 경작지로 활용되다가 17세기, 18세기에 와서 귀족 취향을 반영한 바로크 양식을 담은 정원으로 완성되고, 특히 다양한 유형의 수많은 분수대와 신화의 인물들을 본뜬 조각품들, 다듬어진 나무들 그리고 오렌지 화분으로 정교하게 설계된 오렌지 정원 등으로 바로크 정원양식을 부각한다.²³⁾ 그리고 뷔르츠부르크 '주거' 정원은 1720년에 착공하여 1744년에 완공되며 노이만(Balthasar Neumann, 1687-1753)의 지시로 지어진 궁정 내부는 1781년에 완성된다.²⁴⁾ 정원의 틀은 성벽에 의해 제한되고 두 개의 경사로와 계단은 높은 요새 벽까지 대칭으로 연결되며 중간에 테라스가 있고, 동쪽 정원은 식물과 조각품들, 반원구 천장을 가진 구조물인 아케이드(arcade), 체리나무와 낙엽송, 수많은 의자들, 꽃병, 화분 그릇 그리고 사보이 소년상 및 계단 등으로 독특하게 꾸며졌다. 이에 남쪽 정원은 오렌지 정원과 평평한 직사각형 파르테르로 구성되며 특히 조각 인물상이 놓인 파르테르 잔디밭은 낮은 허브와 라벤더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으며 그곳에 심어진 거대한 원뿔 모양의 주목나무 아래에는 계절을 알리는 상징물로 재미있게 장식되어 있다. 계속해서 뮌헨지역에 속한 오버슐라이스하임의 슈라이스하임 성과 님펜부르크 궁정이 있다. 우선 슈라이스하임 성은 17세기와 18세기에 지어진 3개의 개별 건물로 이루어져 있고 개별 건물은 넓은 정원 공간을 중심으로 서로 축으로 연결된다. 특히 막시밀리안 2세(Maximilian II. von Bayern, 1662-1726)는 1688년 그의 결혼식을 기념하여 기존 궁전 건물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축제를 위한 정원을 염두에 두고 1701년부터 베르사유 양식으로 한 즐거운 주거 궁전을 완성한다.²⁵⁾ 안뜰 정원은 베르사유 정원을 조

22) Clemens Wachter, *Das Erlangen Schloss: Von der markgräflichen Residenz zum Sitz der Zentralen Universitätsverwaltung* (Erlangen: Schmidt, 2005), 7-12.

23) Johann Christoph Volkamer, *Nürnbergische Hesperides* (Nürnberg: J. C. V. Nürnberg, 1708), 83-87.

24) <https://www.residenz-wuerzburg.de/deutsch/garten/geschichte.htm> [2022년 12월 28일 접속].

25) <https://www.schloesser-schleissheim.de/deutsch/hofgarten/gesch.htm>

성한 르 노트르(Andrè le Nôtre, 1613-1700)의 제자인 지라르(Dominique Girard, ca. 1680-1738)에 의해 설계되어 북쪽에는 정자와 조각상들이 들어서고, 궁정 앞과 뒤에는 자수화단으로 구성된 파르테르와 측면에는 보스케가 건립되어 정형적 구조를 형성하며 이어 정원 중앙에 있는 대운하와 적의 방어를 위해 성 외곽에 설치한 둥근 수로시스템인 해자는 뮌헨 남쪽 수로를 통해 님펜부르크 성 공원으로 연결된다. 뮌헨시 안의 두 정원은 거리감을 가지지만 수로로 연결되어 있어 분리된 하나의 정원으로 보인다. 뮌헨 서쪽에 놓인 님펜부르크 성 공원은 분수가 있는 대형 파르테르, 그 뒤에 설치된 중앙 운하, 정자를 가진 프랑스 정원, 아폴로 신전, 대형 인공폭포, 조각상, 정형화된 개별적인 정원 그리고 조경 등으로 교묘하게 건립되어 바로크 정원양식을 두드러지게 한다. 특히 님펜부르크 성 공원에 있는 프랑스 정원은 호화로운 장식으로 1715년부터 지라르와 보프랑(Germain Boffrand, 1667-1754)의 제자인 에프너(Joseph Effner, 1687-1745)에 의해 가꾸어져 바로크 정원양식의 화려함으로 유명하다.²⁶⁾ 이처럼 바이에른주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정원이 있고 그중에 에어랑엔 성 정원에 야외극장이 그리고 오버슐라이스하임의 슈라이스하임 성 정원과 님펜부르크 성 공원에 정자가 설립되어 있다.

계속해서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주의 쌍수시 공원(Park Sanssouci)이 있다. 이 공원의 탄생배경은 하노버 헤렌하우젠 조피 왕비의 정원 사랑에 대한 영향력으로 볼 수 있다. 플루트 연주를 잘하는 프리드리히 대왕(Friedrich II, 1712-1786)은 하노버 조피 왕비의 손녀딸인 도로테아(Sophie Dorothea von Hannover, 1687-1757)의 장남이다. 그래서 어머니의 정원사랑으로 프리드리히 대왕에게 정치적 업무 외의 문학과 예술 그리고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쌍수시 공원이 크노벨스도르프(Georg Wenzelblaus von Knobelsdorff, 1699-1753) 정원건축가에게 1745년부터 1750년까지 맡겨져 완성된다.²⁷⁾ 이 공원은 다른 지역의 귀족들처럼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궁정 정원의 화려한 치장보단 프리드리히 대왕의 '실용적' 생각을 반영하여 포도나무를 심은 계단형

[2022년 12월 28일 접속].

26) <https://www.schloss-nymphenburg.de/deutsch/park/index.htm> [2022년 12월 28일 접속].

27) 고정희, 『바로크 정원이야기』, 222.

테라스가 들어서고 이어서 분수대를 중심으로 파르테르가 조성되어 있다. 그리고 수목 벽은 작은 공간을 품고 군데군데 조성되어 있으며 그 공간 안에는 조각상이나 벤치 또는 작은 분수대가 조화롭게 놓여 있어 아늑한 공간으로 마치 편안한 거실처럼 조성되어 있다.²⁸⁾ 그리고 프리드리히 대왕은 1763년부터 1769년까지 진행된 칠년전쟁이 끝난 후, 새로운 궁전을 건설하고자 궁정 정원사 에크슈타인(Heinrich Christian Eckstein, 1719-1796)에게 정원 일부 지역을 재건립하게 하여 수목 벽을 뒷배경으로 지붕 없이 건립된 야외극장인 헤켄테아터(Heckentheater)를 만들게 한다.²⁹⁾

이어 헤센(Hessen)주에는 풀다 도시 성 공원(Park des Fuldaer Stadtschlusses)과 카셀의 칼사우(Die Karlsaue in Kassel) 정원이 있다. 쉘라이프라스(Adalbert I von Schleifras, 1650-1714) 공작이 이끄는 시기에 풀다 도시 성 공원은 과거 수도원 성에 바로크 정형화 양식을 담아 1706년과 1714년 사이에 디엔첸호퍼(Johann Dientzenhofer, 1663-1726)에 의해 건립되면서 풀다 공작의 거주지로 변모한다.³⁰⁾ 이어 1715년 쉘라이프라스 공작의 후임으로 오른 부틀라르(Konstantin von Buttlar, 1679-1726) 공작은 새 거주지에 어울리는 오렌지 농장이 있는 정원을 만들게 벨쉬(Maximilian von Welsch, 1671-1745) 정원사에게 맡긴다.³¹⁾ 그는 먼저 공원을 통과하는 개울 바이데스바흐(Waidesbach)를 지하로 흐르게 재설계하면서 궁전과 오렌지 정원 사이에 축과 축벽을 만들어 격자문으로 열 수 있게 하고 분수대, 그로테 그리고 물동이뿐만 아니라 오렌지 정원으로 가는 외부 계단에 있는 유명한 꽃병을 비롯한 석조 정원 조각품으로도 바로크 양식의 정원을 완성하게 한다. 계속해서 카셀의 칼사우 정원은 칼 폰 헤센카셀(Karl von von Hessen-Kassel, 1654-1730) 백작이 통치할 때, 바로크 양식으로 1680년에 만들게 한 것을 시작으로 1703년에서 1710년 사이에 오렌지 정원이 건립되면서 18

28) 고정희, 『바로크 정원이야기』, 244.

29) <https://www.spsg.de/tagen-feiern/eventlocation/neues-palais-heckentheater> [2022년 8월 6일 접속].

30) <http://www.ms-visucom.de/cgi-bin/ebidat.pl?id=8128> [2022년 8월 6일 접속].

31) <https://www.tourismus-fulda.de/sehenswuerdigkeiten/parks-und-gaerten/einzelansicht/2/schlossgarten?chHash=3576781d28e37e0a751b7af62675f934> [2022년 8월 6일 접속].

세기 초에 희귀한 식물이 심어진 '7개 동산'이라 칭하는 '꽃섬'이 예술적으로 조성됐다.³²⁾ 이처럼 헤센주의 두 정원은 바로크 정형화 양식으로 구성되었지만, 정원 내에 노천극장과 정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계속해서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Mecklenburg-Vorpommern)주에는 슈베린 성 정원(Schweriner Schlossgarten)과 노이슈트렐리츠 성 공원(Schlosspark Neustrelitz)이 있다. 먼저 슈베린 성 정원은 독일 북부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크 양식의 정원 중 하나로 루드비히 2세(Christian Ludwig II. 1683-1756) 공작이 레게(Jean Laurent Legeay, 1710-1786)에게 부탁해 1748년 베르사유 정원을 모델로 하여 완성되었으며 특히 정원의 중심은 성에서 오스트오르프(Ostorf) 산의 경사면까지 뻗어 있는 십자 운하이며 주변에 가로수길, 수목벽, 그림 같은 대형 그로테, 정자와 분수대, 아케이드, 경마장 및 잔디 파르테르가 들어서고 그 외에 페르모저(Balthasar Permoser, 1651-1732)가 제작한 조각품들이 건축과 자연에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다.³³⁾ 이어 노이슈트렐리츠 성은 도로테아 조피 폰 슐레스비히홀슈타인플렌(Dorothea Sophie von Schleswig-Holstein-Plön, 1692-1765) 공작비의 명령으로 뢰베(Christoph Julius Löwe, 1690경-1752)에 의해 바로크 정원양식을 담아 1726년에 시작해서 1731년에 완공된다.³⁴⁾ 특히 공원에는 주요 길 양쪽에 그로테와 일부 미로를 가진 작은 길, 길가 옆으로 둘러싸인 커다란 잔디밭 파르테르, 둥근 정자, 사냥정원 앞과 뒤에 커다란 호수 그리고 분수대 등이 건립되어있다. 위의 두 정원에는 노천극장은 없지만, 규모 있는 정자가 들어서 있다.

이어 니더작센(Niedersachsen)주에는 켈레의 프랑스정원(Französischer Garten in Celle)과 하노버헤렌하우젠의 대정원(Großer Garten in Hannover-Herrenhausen) 그리고 멜레게스몰트 성 정원(Schloss Gesmold in Melle-Gesmold)이 있다. 먼저 켈레의 프랑스정원은 1670년부터 빌헬름(Georg Wilhelm,

32) Michael Rohde, *Staatspark Karlsaue, Kassel* (Regensburg: Schnell Steiner, 2004), 23-32.

33) https://cdn.netletter.at/sbl-mv/media/download/2009.02.09./1234184992.pdf?d=Flyer_Schlossgarten_Schwerin.pdf&dc=1421252406 [2022년 10월 29일 접속].

34) Otto Wagner, *Fremdenführer von Neustrelitz und Umgebung* (Neustrelitz: Leipziger Verlagsgesellschaft, 1926), 21.

1624-1705) 공작의 아내인 돌브뤼즈(Eleonore d'Olbreuse, 1639-1722)의 권유로 프랑스 정원사 페로네(Henri Péronnet, ?-1690)와 다위롱(René Dahuron, 1660-1730)에 의해 건립된다.³⁵⁾ 1611년에 완성된 켈레 성은 프랑스 정원 동쪽에 위치하고 그 주변에 야외무대, 대리석 기념비 그리고 조각품 등이 있고 서쪽에는 분수대를 가진 원형 연못과 장미정원,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성 주변을 파서 만든 수로인 해자가 만들어졌으며 정원의 사방 경계선은 가로수길로 구분 지으며 바로크 정원양식을 보여준다. 이어 하노버 헤렌하우젠의 대정원은 1683년, 아우구스트(Ernst August, 1629-1698) 왕과 정원 디자인에 형성적으로 영향을 행사한 조피 폰 데어 팔츠 왕비가 정원사 샤보니에를 헤렌하우젠으로 데려와 기존 정원을 확장하게 하여 완성된다.³⁶⁾ 정원의 남쪽 절반은 1696년부터 수목 벽 정원으로 정형화되었으며 수목 벽 정원 중앙에는 대형 분수대가 놓여 있고 1666년부터 먼저 건립된 정원의 북쪽 절반에 있는 수목 벽 정원 지역은 파르테르로 분리되고 이 파르테르는 8개의 판판한 세로 면으로 나뉘지고 그 중심에는 팔각형 분수대가 자리하고 있다.³⁷⁾ 또한, 1665년경에 만들어진 2개의 물고기 연못이 4개의 정사각형 백조 연못으로 확장된 후 1676년에 동굴과 폭포가 분수 기술자인 카다르트(Marinus Cadart)에 의해 설립되고 대정원의 대표적인 진입로인 라임 나무가 있는 헤렌하우젠 4열 가로수길은 샤보니에에 의해 만들어지고 동시에 궁정 북쪽으로 이어지는 보리수나무 가로수길은 당시 여전히 자유로운 풍경을 담아 뻗어 있으며, 1689년에서 1692년 사이에 지어진 야외극장은 수목 벽을 가진 무대로 17세기에 개발되어 황금 조각 인물들로 화려하게 꾸며놓고 오페라, 발레 및 연극 공연뿐만 아니라 연회, 무도회 및 가장무도회의 장소로 사용되었다.³⁸⁾ 이어 1707년에서 1708

35) https://www.celle.de/Celle-entdecken/G%C3%A4rten-Parks-Gr%C3%BCnanlagen/Franz%C3%B6sischer-Garten.php?object=tx_2727_5&ModID=7&FIID=2092.79.1&NavID=2727.60&La=1 [2022년 12월 4일 접속].

36) Helmut Knocke, "Chabonnier," in *Hannoversches Biographisches Lexikon: Von Anfängen bis in die Gegenwart*, ed. Dirk Böttcher (Hannover: Schlütersche, 2002), 84.

37) Bernd Adam, "Die Herrenhäuser Wasserkünste," in *Herrenhausen: Die Königlichen Gärten in Hannover*, ed. Marieanne von König (Göttingen: Wallstein, 2006), 47-48.

38) Adam, "Die Herrenhäuser Wasserkünste," 44.

년 사이에 계단식 사암 기지 위로 화려하게 장식된 돛형의 둥근 정자가 들어서고 계속해서 1730년대에 감귤류 식물과 월계수 나무는 오렌지 파르테르에 놓인 예술적으로 칠해진 화분에 심어놓고 그 화분은 광장의 중앙 분수에, 분수 주변의 길가 교차로에 그리고 외부 통로와 자유롭게 유지되도록 설치 계획에 따라 일렬로 배열되어 정형화를 보여주고, 이런 오렌지 파르테르를 품은 대정원은 바로크 축제 장소로 활용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마지막으로 멜레게스몰트의 게스몰트 성은 16세기에 확장된 르네상스 성으로 2개의 외벽으로 그리고 3개의 해자로 둘러싸여 있으며 계단이 있는 프랑스 정원, 오렌지 정원, 사냥터인 공원을 보유하면서 바로크 정원양식으로 설계되었다.³⁹⁾ 지금까지 다뤄진 니더작센주의 켈레 프랑스정원에 야외무대와 하노버 헤렌하우젠 대정원에 야외극장과 정자가 건립된 것을 볼 수 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주는 브뤼엘의 아우구스투스부르크 성(Schloss Augustusburg in Brühl), 캄프린트포트의 수도원 캄프(Kloster Kamp in Kamp-Lintfort), 뒤셀도르프 벤라트 성의 프랑스 정원(Französischer Garten des Schlosses Benrath in Düsseldorf) 그리고 모리츠(Johann Moritz von Nassau, 1604-1679) 후작이 만든 클레베의 공원(Der von Johann Moritz angelegte Park in Kleve)을 품고 있다. 1728년부터 아우구스투스부르크 성에 정원 예술가 지라르가 바로크 양식을 담아 정원을 설계하고 특히 정원에는 궁전 남쪽에 있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 대규모 자수화단 파르테르, 원형과 사면체 모양의 분수대, 근처에 주변 풍경이 연못 수면에 비치는 거울 연못 그리고 프랑스 자수화단처럼 보이는 장식용 평평한 화단 위에 있는 울타리 장식이 설치되어 있고, 또한 측면에서 파르테르와 경계를 이루는 보리수나무의 가로수길이 원형의 큰 실내장소와 분수 및 작은 실내공간으로 구성된 삼각형 울타리 구역으로 이어지게 건립되어있다.⁴⁰⁾ 이어 수도원 캄프 정원에는 30년 전쟁 후 정원 복합단지가 들어서며, 그중 바로크 정원의 특징은 16개의 직사각형 파르테르로 구성되고, 그중 4곳은 전통적인 자수화단으로 만

39) Urs Boeck, "Gärten des Schlosses Gesmold," in *Historische Gärten in Niedersachsen, Katalog zur Landesausstellung, Eröffnung am 9. Juni 2000 im Foyer des Niedersächsischen Landtages in Hannover*, ed. Rainer Schomann (Hannover: Heimatbund Niedersachsen, 2000), 138-139.

40) <https://www.schlossbruehl.de/schlosspark-bruehl/> [2022년 10월 29일 접속].

들어졌으며, 또한 정원 중앙에는 원형 분수대가 있고 반면에 북쪽에는 대칭적으로 두 개의 오픈지 정원이 배열되어 있다. 계속해서 뒤셀도르프의 벤라트 성에 있는 프랑스 정원은 오귀스트(Elisabeth Auguste, 1721-1794) 선제후비의 사적인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테오도르(Karl Theodor von der Pfalz, 1724-1799) 선제후의 의뢰로 1755년에 시작해 1773년에 피아제(Nicolas de Pigage, 1723-1796)의 지휘하에 완성되었으며, 그곳에는 사냥 공원, 연못 및 운하 시스템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들어서고 특히 정원 동쪽에는 계단식 인공 폭포인 캐스케이드(cascade)가 그리고 서쪽에는 낮은 구조의 자수화단 파르테르가 건립되어있다.⁴¹⁾ 마지막으로 모리츠 후작이 만든 공원은 그의 거주지인 크레베에 건설되었고 그곳 남동쪽에는 있는 매력적인 정원, 팔라스 아테나(Pallas Athena) 동상이 있는 산 협곡에 1647년 정원건축가 캄펜(Jacob van Campen, 1596-1657)이 만들어 놓은 원형극장, 사방으로 뻗게 만들어진 12개의 가로수길 그리고 그 가로수길과 이어지는 북서쪽에 놓인 사냥터 공원이 있고 18세기 중반부터 정원에서 철과 광천이 발견되면서 자연스럽게 치유의 샘인 온천도 추가로 들어서고, 계속해서 분수대와 직사각형의 연못이 가로수길을 양쪽에 두고 가운데에 설치된다.⁴²⁾ 끝으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클레베 공원에만 원형극장이 놓여 있다.

라인란트팔츠(Rheinland-Pfalz)주에는 트리어의 궁정정원(Palastgarten in Trier)과 히르체나흐의 프롭슈타이 정원(Propsteigarten in Hirzenach)이 속해 있다. 트리어 궁정은 17세기와 18세기에 트리어의 대주교가 거주하던 곳이며 궁정의 르네상스와 로코코 양식 건물은 부분적으로 로마 콘스탄틴 대성당의 기초 위에 지어졌고 궁의 남쪽으로 정원이 들어섰지만, 전쟁으로 손실되어 최근 과거 기록에 의해 복원된 정원이다. 1761년에 페르디난트 티에츠 분수가 처음으로 언급되며 계속해서 궁정의 동쪽에는 잔디밭, 무도회장, 중앙에 분수대를 가진 호수를 두고 양면으로 길게 뻗은 가로수 길, 자수화단, 파르테르 중앙에 원형분수대 그리고 수목 벽 앞에 놓인 조각품 등으로 바로크 정

41) <https://www.duesseldorf.de/stadtgruen/park/schlosspark-benrath.html> [2022년 10월 29일 접속].

42) <https://www.kleve.de/wirtschaft-tourismus/tourismus/sehenswert/historische-gartenanlagen> [2022년 10월 29일 접속].

원양식을 담아냈다.⁴³⁾ 그리고 1716년에 완성된 프롭슈타이 정원은 라인강 왼쪽에 놓인 정원으로 그 지역 뒷부분의 중앙 길 끝에는 둥글게 휘어진 커다란 입구와 함께 약수물을 받을 수 있는 웅장한 공간이 있고 두 개의 양방향 계단은 전망 테라스로 이어지고 또 다른 계단은 아래쪽으로 향한다.⁴⁴⁾ 길은 아주 오래된 회양목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으며 남쪽 측면에는 과수가 그리고 테라스에는 포도나무가 심어졌고 사각형으로 구획된 들판에는 그 외의 작물을 재배하는 데 활용되며 회양목 울타리의 교차 공간을 원형으로 만들어 그 안에 물이 보글보글 소리 내며 오르는 장식용 둥근 분수대를 설치하여 바로크 정원 양식을 보여준다. 그리고 트리어 궁정 정원에만 야외 무도회장이 건립되어있다.

자를란트(Saarland)주에서는 블리스카스텔의 오렌지 바로크정원(Barockgarten der Orangerie in Blieskastel), 흠부르크슈바르첸아커에 있는 에델하우스(Edelhaus)의 바로크정원(Barockgarten des Edelhauses in Homburg-Schwarzenacker), 자르브뤼켄에 있는 성의 바로크정원(Barockgarten des Schlosses in Saarbrücken) 그리고 페를에 있는 넬궁정의 바로크정원(모젤)(Barockgarten des Palais von Nell in Perl 'Moselle')을 볼 수 있다. 자를란트주의 정원들은 성이나 궁에 속한 부분으로 자수화단, 파르테르와 그 가운데 둥근 분수대, 울타리나 수목 벽, 통통한 남자아이를 닮은 조각상인 푸토나, 그 외의 조각품 그리고 오렌지 정원 등의 일부 요소를 담아 바로크 정원을 건립한다. 먼저 블리스카스텔의 오렌지 정원은 궁전 단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건물의 긴 면을 따라 12개의 축으로 1670년에 설립된다.⁴⁵⁾ 그리고 흠부르크슈바르첸아커에 있는 에델하우스는 1725년경 스웨덴 건축가 순달(Jonas Erikson Sundahl, 1676-1762)에 의해 건립되며 건물 앞에 바로크 정원이 들어서고 그 정원에는 둥근 분수대가 중앙에 놓여 있는 파르테르가 자수화단과 함께 설치된다.⁴⁶⁾ 이어 자르브뤼켄 바로크 양식의 궁전은 1738년에

43) <https://www.trier.de/kultur-freizeit/geschichte/ueberblick/trier-in-der-fruehen-neuzeit/> [2022년 10월 10일 접속].

44) <https://www.welterbe-mittelrheintal.de/a-probsteigarten-hirzenach> [2022년 10월 10일 접속].

45) <https://www.touren.saarland/de/punkt/denkmal/orangerie-blieskastel/61542789/> [2022년 10월 10일 접속].

46) Stella Junker-Mielke, "Der neue Barockgarten am Edelhaus/ Römermuseum in Homburg-Schwarzenacker," in *Barocke Gartenlust, Auf Spurensuche*

지어졌지만 1793년에 화재로 크게 파괴되어 후에 재설계되고 성의 바로크 정원은 1760년부터 1765년 사이에 조성되며 성 테라스에서 내려오는 인상적인 정원에는 오래된 나무와 중앙에 둥근 분수대가 있는 파르테르가 설치되어 있다.⁴⁷⁾ 계속해서 벨궁전은 1733년 트리어 대성당 수도원 영지에 지어졌으며 궁전 맞은편에 있는 이중 계단이 바로크 정원으로 가는 길로 연결되고 바로크 양식 정원에는 산책로와 평평한 회양목 테두리가 있는 낮은 화단과 엄격하게 기하학적으로 만들어진 파르테르와 그 중앙에 설치된 분수대가 있다.⁴⁸⁾ 이처럼 자를란트주의 바로크 정원에는 야외무대나 노천극장이 들어서지 않았다.

작센(Sachsen)주는 델리치의 성 정원(Schlossgarten in Delitzsch), 드레스덴 근처의 그로스제들리츠 바로크정원(Barockgarten Großsedlitz bei Dresden), 켐니츠 근처의 리히텐발데 성 공원(Park von Schloss Lichtenwalde bei Chemnitz) 그리고 마이센 근처의 차벨티츠 바로크정원(Barockgarten Zabeltitz bei Meißen)을 보유하고 있다. 당시 드레스덴 선제후 아우구스트 2세(August II, 1670-1733)가 태양왕 루이 14세를 본보기로 삼아 본인의 통치시기에 드레스덴시에, 프랑스 베르사유 궁정의 화려한 정원처럼, 정원을 건립하고자 큰 노력을 쏟아 작센주의 드레스덴에는 많은 정원이 들어선다.⁴⁹⁾ 특히 그로스제들리츠 바로크 정원은 다른 성의 정원과 달리 축제를 위한 정원으로 활용되었고 아우구스트 2세가 죽은 후 1734년부터 그의 아들 폴란드의 왕 아우구스트 3세(August III, 1696-1763)가 전통을 이어갔다. 연회장으로 활용한 정원에는 조경을 위한 시각적 축이 있는 테라스, 경사진 계단, 캐스케이드, 성보다 낮은 U자 경기장 모양으로 만들어진 오픈지 파르테르와 그 주변 계단에 놓인 악기를 들고 연주하는 모습을 조각한 푸토 그리고 계단 옆에 설치된 분수대 등이 있다. 이처럼 그로스제들리츠 바로크 정원 외에도 작센주는 델리치 성 정원, 켐니

entlang der Barockstrasse Saarpfalz, ed. Stella Junker-Mielke (Regensburg: Schnell Steiner, 2008), 55-57.

47) Eckart Sander, Manfred Schneider und Ralf Parino, "Vom Fürstensitz zum Bürgerschloss-Das Saarbrücken Schloss," in *200 Jahre Landkreis Saarbrücken-Von Preussens Rand zum Regionalverband*, ed. Regionalverband Saarbrücken (Saarbrücken: Saarbrücken Regionalverband Verwaltung, 2016), 14-15.

48) <https://www.alleburgen.de/bd.php?id=27984#Historie> [2022년 10월 10일 접속].

49) 홍광표, 『서양 정원사』 (서울: 기문당, 2015), 244-245.

츠 리히텐발데 성 공원 그리고 마이센 차벨티츠 정원을 보유하고 있다. 델리치 성 정원은 1692년 프랑스 바로크 양식으로 설계된다. 이 성 정원의 기본 구조는 큰 원형과 방사형 경로 방식으로 구성된다. 주로 사용되는 정원의 입구는 보리수나무가 심어진 성으로 가는 주요 경로에 있으며 한 지점에서 시작되는 방사형 경로 방식은 두 개의 자수화단이 있는 파르테르로 이어지고 가로수길은 당시 7개 중 가운데 길이 중앙 남동쪽 원형의 1/4지점에서 만날 정도로 엄격하게 대칭적으로 설치되었다.⁵⁰⁾ 이어서 리히텐발데 성 공원은 1730년부터 1737년 사이에 성 건설과 함께 산기슭에 지어졌고 성의 가로수길 북쪽에는 채소정원, 바로크 양식의 오렌지 정원, 다양한 분수대, 수많은 조각품이 놓인 율타리 정원 그리고 대형 타원형 저수지 등이 인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다.⁵¹⁾ 마지막으로 차벨티츠 정원은 프랑스 정원 모델을 기반으로 한 작센에서 가장 큰 정원이며 아우구스트 크리스토프(August Christoph von Wackerbarth, 1662-1734) 백작에 의해 1728년에 완성되고 그곳에는 정확한 대칭과 함께 규칙적으로 심어진 보리수나무와 밤나무의 아름다운 가로수길, 이어지는 율타리, 유원지, 사암으로 조각된 작품들이 있는 원형화단 그리고 독특한 분수 방식의 연못 등이 설치되어 있다.⁵²⁾ 이처럼 작센주에 설치된 정원과 공원은 바로크 정원 양식을 담고 있고 야외무대나 노천극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정원 전 구역을 축제나 연회장으로 활용한 기록들을 볼 수 있다.

계속해서 작센안할트(Sachsen-Anhalt)주에는 할덴스레벤의 훈디스부르크 성(Schloss Hundisburg in Haldensleben)과 블랑켄부르크의 성 정원(하르츠)(Schlossgärten in Blankenburg 'Harz')이 있다. 훈디스부르크 성은 30년 전쟁으로 원래 파손된 것이 1654년에 복구되고 그것을 유산으로 1691년 요한 프리드리히 2세(Johann Friedrich II. von Alvensleben, 1657-1728)가 물려받아 바로크 양식으로 궁정과 정원을 건축가 코르프(Hermann Korb, 1656-1735)에게 맡겨 재건립시켰다.⁵³⁾ 특히 정원은 전면 성곽 언덕의 정교한 테라

50) <https://barockschloss-delitzsch.com/barockgarten/> [2022년 8월 6일 접속].

51) Richard Steche, *Amtshauptmannschaft Flöha, Beschreibende Darstellung der älteren Bau- und Kunstdenkmäler des Königreichs Sachsen* (Dresden: Meinhold, 1886), 76-77.

52) <https://www.grossenhain.de/barockgarten-zabeltitz.html> [2022년 10월 10일 접속].

스와 함께 성에서 직접 마을의 일부 농지로 이전되어 완전히 재설계되었으며 화려하게 장식된 조각상이 있는 파르테르, 울타리 수목 벽, 미로와 정원극장, 그로테, ‘물연주’가 가능한 분수대 그리고 광범위하게 수집된 이국적인 식물 등으로 18세기 중반에 궁전과 동등하게 정원의 사치스러운 화려함이 절정에 도달한다. 계속해서 블랑켄부르크의 성 정원은 17세기에 울타리가 쳐진 사냥 공원에서 유래하고 1707년부터 1731년까지 루드비히 루돌프(Ludwig Rudolf von Braunschweig-Wolfenbüttel, 1671-1735) 공작이 브룬즈웁블랑켄부르크(Brunswick-Blankenburg)를 통치할 때 바로크 양식을 담아 건립되었다.⁵⁴⁾ 18세기에 작은 성 옆의 오렌지 광장은 전체 단지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으로 정원극장인 공연장으로 사용되었으며 또한 대칭 모양의 계단식 정원은 물 축이 특징적이고 가장 높은 테라스의 중앙에 삼지창을 가지고 앉아 있는 로마 신 넵투누스의 조각품이 놓여 있으며 그로테에 두 개의 스프링스 그림이 있고 그 아래에 다양한 분수 방식의 분수대도 설치되었고 사암으로 지어진 테라스의 가장 자리에는 신성한 지천사 푸토가 가득 놓여 있다. 작센안할트주에 있는 두 성의 정원은 정원극장을 보유하고 있다.

슐레스비히홀슈타인(Schleswig-Holstein)주에는 함부르크 근처 예르스벡의 구스공원(Gutspark Jersbek bei Hamburg)과 슐레스비히의 글로부스하우스가 있는 고토르프 성의 바로크 정원(Barockgarten des Schlosses Gottorf mit Globushaus in Schleswig)이 조성되어 있다. 먼저 예르스벡의 구스공원은 1726년부터 1740년 사이에 예르스벡 소유주인 부흐발트(Jasper von Buchwaldt, 1650-1705)의 사위이자 건축가로 활동한 알레펠트(Bendix von Ahlefeld, 1678-1757)에 의해 건립되었으며 당시 그는 최고의 프랑스 정원 양식의 요소인 파르테르와 수목 벽 그리고 숲 지역을 2줄과 4줄의 가로수길로 서로 정형이 되도록 연결하고 특히 파르테르 중앙에 2개의 물둥이를 두고 주변에 다채로운 자수화단으로, 과거 르 노트르가 회양나무 울타리와 평평한 화단에 놓인 유색 돌로 꽃테두리를 동반해 보여준 것처럼 구성했다.⁵⁵⁾ 이어 고토오

53) <https://www.familie-von-alvensleben.de/geschichte/850-jahre-familiengeschichte/> [2022년 8월 6일 접속].

54) <https://gartentraeume-sachsen-anhalt.de/de/gartentraeume-parks/schlossgaerten-blankenbourg.html> [2022년 8월 6일 접속].

55) <https://www.jersbeker-park.de/index.php/historisches> [2022년 8월 6일 접속].

르프의 성에 17세기에 웅장한 정원이 들어서기 시작한다. 당시 홀슈타인고트 오르프의 공작인 프리드리히 3세(Frederick III, 1597-1659)는 궁정 정원사 클로디우스(Johannes Clodius, 1584-1660)에게 궁전 섬에서 북쪽으로 약 500m 떨어진 곳에 매우 특별한 정원을 만들게 하여 정원에 헤라클레스 분수대가 있는 연못, 중앙에 팔각형 정자가 있는 지상 수준의 파르테르, 그리고 아주 높은 정원 테라스가 들어서고 1713년에 제거된 지구본 모형의 하우스도 1654년에 건립되었다.⁵⁶⁾ 계속해서 그가 죽은 후 후임으로 그의 아들 크리스티안 알브레히트(Christian Albrecht, 1641-1695)가 1660년부터 통치하면서 정원구조에 변화를 준다. 그는 기존 정원 북쪽에 4개의 테라스를 건립하게 하고 동쪽과 서쪽으로 인접한 숲 지역을 계단식으로 만들게 하여 정원구역에 부속시키고 테라스에는 웅장한 계단, 캐스케이드 및 분수가 있는 계층적 경로 시스템과 측면에 회양목 식물이 있는 정교한 내부 구조를 베르사유 정원처럼 완성하게 한 후 17세기 말에 헤라클레스 연못 동쪽에 그로테가 설립되면서 최고의 화려함을 정원에 담아냈다. 당시 이 두 정원에서는 노천극장을 찾아볼 수 없지만 고트오르프 성의 바로크 정원에는 극무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정자가 들어서 있다.

끝으로 튀링엔(Thüringen)주의 에벨레벤 성 공원(Park von Schloss Ebeleben)이 있다. 이 성 공원은 1770년대에 슈바르츠부르크존더스하우젠(Schwarzburg-Sondershausen)의 크리스티안 귄터 3세(Christian Günther III, 1736-1794) 왕에 의해 완성되지만, 당시 바로크 공원의 전형적인 틀에서 벗어나, 즉 궁정이 공원 중심축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고 직각 구성으로 보조축에 놓여 건립되었다.⁵⁷⁾ 특히 남쪽 파르테르뿐만 아니라 원형문형도 모두 예술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과거 오렌지 정원 앞의 북쪽 파르테르 부분이 사냥 분수에 끌려있고 그로테를 가진 계단식 대형 폭포와 계절과 요소들을 상징하는 여신들의 조각상이 정원의 예술성을 절정으로 이끈다. 하지만 당시 에벨레벤 성 공원에는 극 무대를 펼칠 노천극장과 정자가 건립되어있지 않아서 오늘날 까지도 정원축제는 분수대가 중앙에 놓인 파르테르 주변에서 자유롭게 진행되

56) <https://gottorfer-globus.de/de/der-barockgarten> [2022년 8월 6일 접속].

57) <https://www.ebeleben.de/verzeichnis/objekt.php?mandat=202410> [2022년 8월 6일 접속].

고 있다.

이처럼 바로크 정원양식의 특징인 정형화 요소들, 즉 파르테르, 자수화단, 오렌지 정원, 조각품이 있는 분수대, 그로테, 수목 벽 그리고 인공폭포 등이 독일 바로크 정원에 설치되었으며 그 외에도 독일 정원은 야외극장이나 야외무대 또는 야외무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정자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예외적으로 헤센주, 자를란트주, 작센주 그리고 튀링엔주는 정원에 야외극장과 야외무대 그리고 정자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중 작센주나 튀링엔주의 정원이 연회나 축제용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이 정원의 음악문화 생성에 유관함을 알아차릴 수 있게 한다.

2. 바로크 독일 정원의 음악문화에 대한 생성과정 및 특징

본 단락은 바로크 독일 정원에서 펼쳐진 귀족들의 문화활동이 어떻게 정원의 음악문화로 생성되었는지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이어 바로크 독일 정원 공간에 어떤 ‘문화적 소리’를 담았는지에 관한 연구로 바로크 독일 정원음악문화의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2.1. 바로크 독일 정원의 음악문화에 대한 생성과정

과거 부유한 독일 귀족들은 자연을 그들의 생활공간인 궁정으로 옮겨 놓고 정원으로 칭하면서 가꾸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을 산책하면서 정서활동을 위한, 즉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자연과 어우러진 궁정 행사를 고안하면서 다양한 시도를 한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만족할만한 정원을 꾸미는 작업과 함께 정원에서 개최되는 궁정 행사에 어울리는 적합한 소재들을 정원에 설치한다. 특히 정원의 식물, 무대장치, 테라스, 계단, 분수, 연못, 조각상 등의 개별적 요소들이 정원을 장식하며 그와 관련된 의미와 작용들은 시공간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가져다준다. 그리고 그 다양한 의미들은 인간의 생활양식으로 다가와 문화적 성격을 가진다. 이에 바로크 독일 정원에서의 문화활동 역시 공간과 어울리는 적합한 소리인 문화적 소리를 가지며 음악문화를 생성한다. 그 예로 1582년 피렌체에 유럽 최초 언어학술원인 아카데미아 델라 크루스카(Accademia della Crusca)가 등장하고 1600년부터 그 학술원에 안할트코텐의 루드비히

(Ludwig von Anhalt-Köthen, 1579-1650) 후작이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그곳에서 쌓은 경험을 독일로 전수하여 그 여파로 독일에서도 독일어의 연구와 보급에 관련된 언어와 시인단체들(Sprach- und Dichtergesellschaften)이 결성되기 시작했으며 그 시작은 열매를 맺는 협회(die Fruchtbringende Gesellschaft)의 조직으로 알린다.⁵⁸⁾ 그리고 그는 자연을 좋아하여 유럽의 아름다운 도시를 여행하면서 자연과 여행지의 아름다움을 담아 시를 짓고 그의 시에서 당시 피렌체 정원의 극장 무대에 대한 묘사를 다음과 같이 “[...] 물과 숲으로 잘 채워지고[...]”⁵⁹⁾라며 언급한다. 이처럼 시에서 정원 무대를 담아 언급할 정도로 루드비히 후작은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특히 그 나라의 자연과 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경험한 사례를 고국에 그대로 가져와 보급했으며 이는 자연에서 자연을 묘사하는 언어와 시문학으로 이어져 오페라 작품을 만들게 한다. 이와 관련지어 독일 뉘른베르크의 법률가 직업을 가지고 번역가, 학자 그리고 시인으로 병행 활동하면서 뉘른베르크 시인단체를 조직한 하르스되르퍼(Georg Philipp Harsdörffer, 1607-1658)가 8권으로 구성된 방대한 문학전집 『여성실에서의 대화놀이』(*Frauenzimmersgesprächspiele*)를 1641년부터 1649년까지 쓰고 이 전집 4권에 지금까지 현존하는 독일 오페라 <젤레비히>(*Seelewig*)를 실었으며, 1644년에 완성된 이 오페라는 자연을 배경으로 양치기 소녀 젤레비히를 농락하려는 반인반수인 트뤼게발트(Trügewalt)의 성공하지 못한 계략의 줄거리를 담고 있다.⁶⁰⁾ 이 작품의 음악은 당시 뉘른베르크시의 나팔수이자 오르간연주자 그리고 작곡가로 활동한 슈타덴(Sigmund Theophil Staden, 1607-1655)이 1644년에 작곡했다. 그리고 하르스되르퍼가 4권에 실린 오페라 <젤레비히> 작품에 관해 설명하면서 중간에 배경 그림을 삽입한 것을 기반으로 이 작품의 상연장소를 야외무대인 정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58) Richard Newald, *Die deutsche Literatur vom späthumanismus zur Empfindsamkeit 1570-1750* (München: C. H. Beck'sche Verlagsbuchhandlung, 1967), 203-206.

59) Julius Ziehen, *Das Reisegedicht des Fuersten Ludwig zu Anhalt-Koethen* (Frankfurt: Festschrift fuer Friedrich Clemens Ebrard, 1920) 16, 재인용.

60) 조연숙, “뉘른베르크 오페라 <젤레비히>(*Seelewig*)에서 사용된 악기와 조성에 대한 상징적 의미와 정서적 표현,” 『음악이론포럼』 26/1 (2019), 12-15.

〈그림 1〉⁶¹⁾



〈그림 1〉에서 바로크 정원의 특징을 볼 수 있듯이 궁전 왼쪽 첫 번째에 반원구 천장을 가진 구조물로 아케이드가 있고 이어 단순한 사각형 화단인 파르테르와 그 중앙에 놓인 분수대 그리고 나무가 일렬로 심어진 가로수길이 건립되어있다. 또한, 오페라 대본의 배경 장소는 숲과 이어진 바다 근처 강이라 정원의 운하로 강이 연출되고 작품의 등장인물인 양치기 소녀와 소년들이 배에서 즐거운 놀이를 하는 것처럼 그림에 담아졌다. 계속해서 1725년경 그려진 자자미상의 그림을 통해 하노버 헤렌하우젠 정원의 야외무대에서 문학작품을 담은 오페라를 상연하고 그것을 귀족들이 즐겼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⁶²⁾ 이는 오페라를 즐기기 위해 독일에서는 먼저 이탈리아 시문학과 오페라를 수용하고 이어 프랑스 베르사유 정원 양식을 받아들이면서 베르사유 정원에 없는 노천극장을 헤렌하우젠 정원에 건립한 그 연유를 이해하게 하고 잦은 정원축제와 함께 정원의 음악문화를 풍성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그곳에서 개최되는 화려한 축제와 음악회를 준비한 조피 왕비는 유럽의 귀족들을 초대하여 하노버 정원 음악문화를 그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하노버 정원축제와 음악회가 유명해지기 시작하고 동시에 다른 지역 정원의 음악문화 보급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독일 정원의 음악문화를 제공하기 전에 조피 왕비는 베르사유 정원을 방문하여, 춤을 좋아하는 루이 14세의 베르사유 정원축제에 웰리

61) Georg Philipp Harsdörffer, *Frauenzimmer Gesprächspiele IV Teil*, Nürnberg 1644, ed. Irmgard Böttcher, reprint (Tübingen: Max Niemeyer, 1968), 36-37.

62) 조연숙, “19세기 독일 정원음악.” 『음악이론포럼』 24-2 (2017), 11-12.

(Jean Baptiste Lully, 1632-1687)가 이끄는 왕의 24 바이올린 오케스트라의 랜들러 음악 연주가 무척이나 인기가 있었고,⁶³⁾ 이를 기반으로 프랑스 기악양식은 계속 발전되면서 랜들러 음악의 즐거움과 함께 루이 14세가 춤의 대가로 인정받는 것을⁶⁴⁾ 경험한다. 그리고 조피 왕비처럼 그녀의 남편인 아우구스트 왕도 음악을 좋아했다. 특히 그는 오페라와 베니스 가면무도회인 카니발을 선호하여 1686년 직접 베니스를 방문해 경험을 쌓고 귀국해 헤렌하우젠 정원에서 오페라와 베니스 카니발을 상연하고 보급해 독일 내 정원 음악문화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화려한 행사로 자리 잡게 한다.⁶⁵⁾ 이를 위해 과거 뮌헨 궁정의 오르간 연주자로 활동하면서 파리 여행 때 뮐리와 친분을 가진 이탈리아 외교관이자 신학자 그리고 작곡가로 활동한 스테파니(Agostino Steffani, 1654-1728)가 1688년부터 하노버 궁정악장으로 활동하기 시작한다.⁶⁶⁾ 이듬해 1689년 그는 하노버 거주민 1/10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큰 규모인 1300석 노천극장에서 본인이 쓴 오페라 《엔리코 레오네》(*Enrico Leone*)를 올려 헤렌하우젠 정원 음악문화의 풍성함을 보여주었다.⁶⁷⁾ 당시 스테파니와 친분이 있던 청년 헨델(Georg Friedrich Händel, 1685-1759)과 헨델의 절친 마테손(Johann Mattheson, 1681-1764)도 하노버 궁정축제에 초대받아 정원의 음악문화를 경험하고 이에 헨델은 독일에 있는 세련된 궁정으로 모든 것이 최고로 유지되었으며 오페라가 중심에 있다고 언급하는 반면에 마테손은 완벽한 악장에 단련된 오케스트라 그리고 순수한 분위기를 칭찬했다.⁶⁸⁾ 그리고 1705년부터 조라우 궁정악장으로 활동하면서 주변 궁정 음악회를 방문하면서 음악적 표현을 습득했던 텔레만(Georg Philipp Telemann, 1681-1767) 역시 하노

63) Walter Salmen, *Gartenmusik, Musik-Tanz-Konversation im Freien*, 177.

64) Ute Jung-Kaiser und Annette Simonis, *Die verzaubernde Kunstwelt Ludwigs IV.-Versailles als Gesamtkunstwerk*, 80.

65) Clark Ronald, "Das Theaterboskett im Grossen Garten Hannover-Herrenhausen," in *Musiktheater im höfischen Raum des frühneuzeitlichen Europa* (Heidelberg: Heidelberg University-Publishing, 2019), 176.

66) Werner Rackwitz, *Georg Philipp Telemann* (Leipzig: Philipp Reclam jun., 1981), 365-366.

67) Clark Ronald, "Das Theaterboskett im Grossen Garten Hannover-Herrenhausen," 176.

68) Joseph Müller-Blattau, *Georg Friedrich Händel* (Mainz: B.Schott's Söhne, 1959), 43.

버 궁정 정원축제에 참여한 후 프랑스 기악양식을 그리고 이탈리아 성악양식을 알게 되었다며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⁶⁹⁾ 그리고 헤렌하우젠 정원의 음악문화를 즐기면서 성장한 조피 왕비의 자녀들이 정략결혼과 함께 헤렌하우젠 정원의 음악문화도 같이 독일 내에서 보급되기 시작한다. 특히 조피 왕비의 7명의 자녀 중 유일한 딸인 샤를로테는 베를린 프로이센 국왕 및 브란덴부르크 선제후 프리드리히 1세(Friedrich I, 1657-1713)와 결혼을 하고 1697년 샤를로텐부르크 정원을 건립하여 정원의 음악문화를 풍성하게 이어갔고 그들의 아들인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Friedrich Wilhelm I, 1688-1740) 때는 프로이센의 전쟁준비로 건축정책이 시행되어 정원을 확장할 수 없었지만, 그의 아들 즉 샤를로테의 손자인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왕(Friedrich der Große, 1712-1786)은 1741년에 왕위를 물려받고 1745년부터 1750년까지 포츠담의 썬슈시 정원을 건립해 큰 규모의 연회보다는 음악회를 자주 열며 본인이 작곡한 플루트 협주곡도 직접 연주하면서 정원의 음악문화를 다채롭게 이끌었다.⁷⁰⁾ 또한 그의 플루트 교사이자 그가 연주할 플루트 작품을 쓴 작곡가로 채용되기 전에 아우구스트 2세의 드레스덴 궁정 오케스트라 플루트 주자로 활동한 크반츠(Johann Joachim Quantz, 1697-1773)가 개별 궁정의 음악문화를 자연스럽게 전하게 된다.⁷¹⁾ 계속해서 프리드리히 1세와 동시대에 활동한 드레스덴 선제후 아우구스트 2세는 프랑스 정원문화에 마음을 뺏겨 그의 재임 시절 제2의 베르사유 정원을 연상하게 할 정도의 많은 정원건립을 추진하면서 개별 정원에서 다채로운 음악문화를 제공하며 그의 정치활동에 있어 화려함을 담은 정원은 아주 중요한 장소이기에 그곳은 야외무대로 활용된 정자와 함께 축제장소로 선호됐다.⁷²⁾ 당시 드레스덴 대정원에서는 1년에 60회 정도의 문화행사 즉, 무도회, 박람회, 사냥대회, 가장무도회, 축제 등이 음악과 함께 개최되었으며 그 화려함은 드레스덴의 정원축제 때 음악회를 이끈 음악가들의 명단으로, 즉 수석 플루트 연주자인 뷔파르댕(Pierre-Gabriel Buffardin, 1689-1768), 무용교사

69) Werner Rackwitz, *Georg Philipp Telemann*, 198-199.

70) 고정희, 『바로크 정원이야기』, 244.

71) Albert Quantz, *Leben und Werke des Flötisten Johann Joachim Quantz, Lehrers Friedrichs des Grossen* (Berlin: Oppenheim, 1877), 7.

72) Veit Valentin, *Illustrierte Weltgeschichte*, Bd. 2 (Köln: Lingen Verlag, 1976), 676-677.

와 음악가 그리고 작곡가로 활동한 헤벤슈트라이트(Pantaleon Hebenstreit, 1668-1750), 이탈리아 오페라 작곡가인 로티(Antonio Lotti, 1667-1740), 바이올린 연주자와 작곡가로 활동한 피젠델(Johann Georg Pisendel, 1687-1755), 플루트 주자로 활동한 크반츠, 궁정악장과 작곡가로 활동한 슈미트(Johann Christoph Schmidt, 1664-1728), 바이올린 연주자와 작곡가로 활동한 베라치니(Francesco Maria Veracini, 1690-1768), 바이올린 연주자와 작곡가로 활동한 볼뤼미에(Jean Baptiste Volumier, 1678-1728), 류트 연주자와 작곡가로 활동한 바이스(Sylvius Leopold Weiss, 1687-1750) 그리고 작곡가인 켈렌카(Jan Dismas Zelenka, 1679-1745) 등으로 가늠할 수 있다.⁷³⁾ 그리고 이런 많은 음악가가 필요했다는 것은 드레스덴 정원축제의 규모 또한 이해할 수 있으며 단적인 예로 1719년 거행된 아우구스트 2세의 아들 결혼식 행사를 꼽을 수 있다. 당시 4000명의 방문객과 함께 드레스덴 정원에서 20일 이상 펼쳐진 결혼식 음악행사에 신혼부부와 함께 100대의 치장된 마차가 궁정정원을 지나갈 때 개선문과 교회 탑에서 울려 퍼진 트럼펫과 팀파니 음악, 300명 이상이 참여한 오페라 공연, 배경음악인 다양한 타펠무지크(Tafelmusik), 노래와 합창 그리고 춤음악 등이 선택됐다.⁷⁴⁾ 또한, 1718년 5월 12일 아우구스트 2세의 48번째 생일축제도 궁정 정원에서 거행되었다. 당시 참석한 모든 남녀는 연주자의 음악을 들을 수 있었고 왕에게 식사를 올리려고 생일축제에 초대 받은 젊은 여인들은 마치 하얀 양치기 소녀처럼 머리에 화환을 쓰고 화려한 옷과 꽃으로 치장했으며 정원 주변의 인공폭포와 함께 그로테를 램프로 밝게 비추어 정원에서 잔잔한 즐거움이 깔린 영광스러운 축제가 진행되었다.⁷⁵⁾ 이어 동시대 프랑스와 동맹을 맺으며 정치적 활동을 한 막시밀리안 2세 에마누엘(Maximilian II. Emanuel, 1662-1726)은 르 노트르의 제자인 지라르에게 뮌헨의 님펜부르크 궁정과 술라이스하임 궁정의 정원을 조성하게 하여 바로크 정형화된 정원을 보유하며 하노버 왕실과 프로이센 왕실의 정원 음악문화 못지

73) Quantz, *Leben und Werke des Flötisten Johann Joachim Quantz, Lehrers Friedrichs des Grossen*, 7.

74) https://de.wikipedia.org/wiki/August_der_Starke [2023년 2월 13일 접속].

75) Friedrich Christoph Förster, *Friedrich August II., König von Polen und Kurfürst von Sachsen: seine Zeit, sein Cabinet und sein Hof* (Potsdam: Ferdinand Riegel, 1839), 454-455.

않게 적극적으로 후원했다.⁷⁶⁾ 또한, 그는 직접 어린 시절 음악을 배워 노래하는 것을 즐기고 플루트도 연주할 수 있었으며 더욱이 이동중에 휴대용 오르겔을 가지고 다닐 정도로 음악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다.⁷⁷⁾ 이처럼 막시밀리안 2세 에마누엘은 음악을 좋아하여 그의 통치 시기 1680년부터 1726년 사이에 궁정악단을 이끈 베르나베이(Joseph Anton Bernabei, 1649-1732), 토리(Pietro Torri, 1650-1737) 그리고 하노버 궁정악장으로 활동하기 이전의 스테파니를 채용하여 궁정 무도회, 극무대 및 오페라 공연을 정자가 있는 정원에서 펼치며 거의 매일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연주하게 했고 특히 오페라, 세레나데, 칸타타 등의 연주에 직접 관여할 정도의 적극성을 보이며 뮌헨 궁정 음악문화의 전성기를 재개했다.⁷⁸⁾ 이처럼 독일 정원에서 생성된 음악문화는 귀족들의 음악선호와 음악활동 그리고 음악회를 담은 정원축제로 보급되면서 발전되고 또한, 궁정 악장이나 악단으로 활동한 음악가들의 소속 이동으로 특히 이탈리아 음악가들의 소속 이동은 독일 정원에 성악음악을 보급하는 ‘촉매제’로 작용했다. 이에 스테파니는 뮌헨 궁정, 하노버 궁정, 프로이센 궁정과 브란덴부르크 등의 정원 음악문화를 보급하는 데 중요한 음악가로 간주할 수 있다. 그는 뮌헨궁정과 하노버궁정 악장으로 활동했고 하노버 궁정악장으로 일할 때 하노버 정원의 음악문화를 풍성하게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후원한 조피 왕비의 딸인 샤를로테에게 음악교육도 했으며, 음악교육을 받은 그녀는 프로이센 국왕 및 브란덴부르크 선제후 프리드리히 1세와 결혼하여 프로이센 샤를로텐부르크 궁정 정원에 음악문화를 풍성하게 이어갔다. 이런 하노버 궁정의 정원문화는 계속해서 브란덴부르크 쌍수시 정원을 건립한 그녀의 손자인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왕에게 이어진다. 이처럼 하노버 헤렌하우젠 궁정의 정원음악문화에 참여한 귀족들뿐만 아니라 이 궁정과 사교나 정치적 교류를 가진 동시대 귀족들 역시 음악을 선호하고 음악활동을 하며 그들의 정원에 음악문화를 담아냈다.

76) 홍광표, 『서양 정원사』 (서울: 기문당, 2015), 240-241.

77) Otto-Karl Tröger, *Der bayerische Kurfürst Max Emanuel in Brüssel. Zu Politik und Kultur in Europa um 1700* (München: Danuvia Druckhaus Neuburg, 1998), 47.

78) Robert Münster, “Die Münchner Hofmusik bis 1800,” in *Süddeutsche Hofkapellen im 18. Jahrhundert*, ed. Silke Leopold and Bärbel Pelker (Heidelberg: Heidelberg University Press, 2018), 370.

2.2. 바로크 독일 정원의 음악문화에 대한 특징

프랑스 바로크 베르사유 정원양식과 그에 따른 정원문화를 수용한 독일 귀족들은 정원을 가꾸면서 그들의 개별 취향을 반영한 정원의 음악문화도 다양하게 시도했다. 그 시작은 독일 내 바로크 정원을 개원한 하노버 헤렌하우젠 정원이며 이 정원은 독일 바로크 정원 역사에서 대표성을 띠기도 한다. 그리고 프랑스 베르사유 궁정 정원의 음악문화가 주로 상설무대에서 이뤄진 것에 비해 프랑스 정형식 정원을 이루는 요소들을 갖춘 헤렌하우젠 정원의 음악문화는 노천극장에서 펼쳐진다. 이 노천극장은 높게 쳐진 수목 벽으로 구성된 보스케 안에 건립되어있고, 좁지만 천 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관람석은 1.45미터 높이를 가진 뒤쪽부터 완만한 계단식으로 무대를 향해 자리 잡고 있으며, 관람석 반대방향에 뻣뻣하게 높은 수목들이 양쪽으로 50미터까지 길게 벽을 치고 그 앞에 조각상들이 줄지어 서 있는 무대는 앞쪽으로 25.5미터 그리고 뒤쪽으로 17미터까지 축소된 폭을 가져 막다른 길을 연상케 한다.⁷⁹⁾ 마치 무대 뒷면의 수목 벽으로 메운 것처럼 관람석에서 보이지만 실제로 50미터 긴 길이 사이에 측면 수목 벽들이 도미노처럼 겹겹이 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당시 귀족들이 궁정에 초대된 ‘청중’과 함께 무대극을 정원에서 볼 수 있었고 더욱이 뻣뻣한 수목 벽의 설치로 음악을 담아 청중들과 함께 음향을 즐길 수도 있었다. 계속해서 정원에 노천극장을 보유한 독일 내 다른 궁정들도 있었고 노천극장을 보유하지 않은 대신에 야외무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정자를 건립하여 음악문화를 즐겼다. 이는 하노버 헤렌하우젠 정원음악회를 방문한 텔레만이 프랑스 기악양식과 이탈리아 성악양식을 알게 되었다고 언급한 내용으로 독일 정원음악문화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당시 독일 귀족들은 그들의 정원에 프랑스 베르사유 정원 양식과 음악문화를 담아내면서 동시에 이탈리아의 시문학과 오페라에 대한 극음악 수용도 진행했다. 하지만 이탈리아 극무대의 공간활용과는 달리 독일은 이미 그들만의 무대 공간 활용을 시도한 것이 전해진다.⁸⁰⁾ 16세기 이탈리아는 그림 배경을 사용한 무대를 활용하면서

79) 고정희, 『바로크 정원이야기』, 214-215

80) Hans Heinrich Borchardt, *Das europäische Theater im Mittelalter und in der Renaissance* (Hamburg: Rowohlt, 1969), 189.

주어진 공간 안에서 가능한 작품과 조화로운 환상적인 현장을 만들었던 반면에 독일은 ‘거친’ 무대를, 예컨대 신비스런 장면이나 식사 장면에서 정원의 진짜 나무를 무대에 옮겨 놓거나 실제 음식을 차려놓은 식탁으로 연출했다.⁸¹⁾ 이는 바로크 독일 정원에 노천극장이 들어선 ‘당위성’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또한 바로크 독일 오페라 상연도 정원에서 시작한 것을 알아차리게 한다. 예컨대 오피츠(Martin Opitz, 1597-1639)의 리누치니(Ottavio Rinuccini, 1562-1621) 개작본으로 1627년 쉴츠(Heinrich Schütz, 1585-1672)가 쓴 현재 분실된 독일 최초의 오페라 《다프네》(*Dafne*)에서 자연의 월계수가 등장하고, 1644년에 하르스되르퍼 대본으로 슈타텐이 작곡한 독일 최초 현존하는 오페라 《젤레비히》에서도 자연을 배경으로 양치기 소녀와 소년 그리고 반인반수의 이야기가 전개된다. 이처럼 바로크 시기에 등장한 오페라 장르가 이탈리아 시문학과 함께 오페라 작품으로 완성되면서 프랑스 베르사유 정원양식을 품고 건립된 독일의 정원에 어울리고 적합한 ‘문화적’ 소리로 생성된다. 이는 독일 정원의 노천극장과 야외 정자에 프랑스 정원에서 펼쳐진 연회나 무도회 때 연주된 기악음악과 이탈리아 성악음악을 수용 발전시키면서 독일 정원의 음악문화를 ‘특별하게’ 만든 원동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바로크 독일 정원의 음악문화는 자연적 요소와 배경을 담아 교훈적으로 독일 오페라만의 특징을 담아낼 수 있었으며 동시에 실내 오페라 극장의 건립과 실내음악의 등장을 북돋아 주었다.

3. 바로크 독일 정원의 음악문화가 가져다준 사회적 의미

바로크 독일 정원의 음악문화가 계속 발전하고 유지되는 것은, ‘정치적 무대’와 정원문화의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당시 노천극장과 야외극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자의 건립, 궁정악단의 소유, 높은 분수대를 가진 정원의 크기 그리고 규모 등은 그 궁정의 힘과 부를 상징하는 좋은 문화적 요소이자 그것을 축적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했다. 단적인 예로 베르사유 정원축제와 하노버 헤렌하우젠 정원축제 때 보여주는 정원의 음악문화가 그것을 이해시킨다. 즉 베르사유 정원축제 때 여섯 필의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루이 14세가 보스케로 등

81) Hans Heinrich Borchardt, *Das europäische Theater im Mittelalter und in der Renaissance*, 189-190.

장한 것과, 하노버 정원 보스케 안에 1,300명의 관람석을 보유한 노천극장 등이다.⁸²⁾ 그리고 자연에서 음악회 또는 연회가 개최될 때, 음향기기가 없는 그 시절 높고 두툼한 수목 벽인 보스케로 구성된 공간 안에 노천극장을 만들어 참석자들에게 소리 전달로 즐거움을 선사하려는 시도와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기 위한 자수화단과 분수대 음악회 등으로 궁정의 부와 힘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정원 무대에 오페라가 상연되는 궁정 연회는 정치적 서열이 높은 귀족들의 정치적 관계를 아주 밀접하게 만들어주는 고급 정원 문화행사이다. 따라서 많은 경비와 넓은 상연 무대와 연출 등이 필요한 오페라는 귀족들의 출생과 생일, 결혼식, 대관식, 군사적 승리 등을 기념하기 위한 일련의 축제에 활용되면서 내빈과 외빈에게 최고의 정치적 그리고 사교적 효과를 가져다주는 ‘사회적 매개물’로 ‘문화적 자본’을 축적하게 한다. 동시에 당시 귀족들이 교양으로 배워야 할 문학, 연극 그리고 음악이 녹아 있는 오페라 장르는 그들 간의 고급 대화를 유도하게 하며 친목을 다지게 하여 결국 사회적 관계망을 넓히는 수단으로 바로크 독일 정원에서 생성된 음악문화의 또 다른 사회적 의미를 낳는다.

III. 결론

루이 14세의 화려함이 묻어나는 베르사유 궁정의 정형화된 정원양식을 수용하고 그에 따른 정원의 음악문화도 독일 귀족들이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이탈리아 시문학과 오페라 장르를 수용하여 자국 정원의 음악문화를 다채롭게 시도하며 즐거움을 누린다. 독일에서 제2의 베르사유 궁정이라 칭하는 하노버 헤렌하우젠 궁정 정원의 설립을 시작으로 1707년부터 1728년 사이에는 브뤼 궁전 정원, 드레스덴 대정원 그리고 바이커스하임 성 정원 등이 들어서고 이후에 1753년부터 1758년 사이에는 마지막 정형화 정원인 슈베칭엔 궁전 정원이 완성된다. 그리고 독일 정원에 바로크 정원양식의 특징인 정형화 요소들, 즉 파르테르, 자수화단, 오렌지 정원, 조각품을 가진 분수대, 그로테, 수목 벽 그리고 인공폭포 등이 설치되었으며 그 외에도 야외극장이나 야외무대 또는 야외무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정자가 들어섰다. 이에 독일 귀족들은 정원 공간 안에 어울리는 문화

82) 고정희, 『바로크 정원이야기』, 214.

적 소리를 찾아서 다양하게 담아 자연에서 드라마, 오페라 등의 공연을 시도했으며 장르의 선택과 작품의 규모는 당일 정원행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프랑스와 이탈리아 양국에서 특히 프랑스 정원에서 펼쳐진 연회나 무도회 때 연주된 기악음악을 그리고 이탈리아의 성악음악을 수용한 후 독일 정원의 음악문화를 발전시켰고 이는 자연적 요소와 배경을 담아 교훈적으로 ‘특별하게’ 독일 오페라만의 특징을 보여주며 후에 오페라 상연을 위한 실내 오페라극장의 건립과 실내음악의 등장을 이끈다. 계속해서 독일 내 정원음악의 보급은 궁정 연회와 음악축제, 교양을 위한 귀족들의 음악교육과 음악활동, 궁정과 왕실의 정략결혼 그리고 궁정악장들의 이동으로 인한 소속 변동과 연주여행에 의해 이뤄졌다. 그리고 부와 권력이 녹아 있는 바로크 독일 정원에서 귀족들은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한 음악문화를 생성시키며 당시 사회에서 다양하게 활용했다. 특히 정원 무대에 오른 오페라가 상연되는 궁정 연회는 정치적 서열이 높은 귀족들의 정치적 관계를 아주 밀접하게 만들어주는 고급 정원 문화행사였다. 그래서 오페라는 귀족들의 출생과 생일, 결혼식, 대관식, 군사적 승리 등을 기념하기 위한 일련의 정원축제에 활용되면서 내빈과 외빈에게 최고의 정치적 그리고 사교적 효과를 가져다주는 ‘사회적 매개물’로 ‘문화적 자본’을 축적하게 한다. 동시에 귀족들이 당시 교양으로 배워야 할 문학, 연극 그리고 음악이 녹아 있는 오페라 장르는 그들 간의 고급대화를 유도하게 하며 친목을 다지게 하여 결국 사회적 관계망을 넓히는 수단으로 바로크 독일 정원에서 생성된 음악문화의 사회적 의미를 인식할 수 있게 한다.

한글 검색어: 바로크 노천극장, 궁전 정원음악회, 야외 오페라 무대, 보스케, 야외 무도회장

영문 검색어: Baroque Open-Air-Theater, Palace Garden Concert, Outdoor Opera Stage, Boskett, Outdoor Ballroom

참고문헌

- 고정희. 『바로크 정원이야기』. 서울: 나무도시, 2008.
- 조연숙. “19세기 독일 정원음악.” 『음악이론포럼』 24/2 (2017): 9-35.
- _____. “뉘른베르크 오페라 <<젤레비히>>(Seelewig)에서 사용된 악기와 조성에 대한 상징적 의미와 정서적 표현.” 『음악이론포럼』 26/1 (2019): 11-42.
- 홍광표. 『서양 정원사』. 서울: 기문당, 2015.
- Adam, Bernd. “Die Herrenhäuser Wasserkünste.” In *Herrenhausen: Die Königlichen Gärten in Hannover*. Edited by Marianne von König, 43-58. Göttingen: Wallstein, 2006.
- Boeck, Urs. “Gärten des Schlosses Gesmold.” In *Historische Gärten in Niedersachsen. Katalog zur Landesausstellung, Eröffnung am 9. Juni 2000 im Foyer des Niedersächsischen Landtages in Hannover*, Edited by Rainer Schomann, 138-139. Hannover: Heimatbund Niedersachsen, 2000.
- Böhm, Winfried. “Kultur.” In *Wörterbuch der Pädagogik*. Edited by Wilhelm Hehlmann, 411-412. Stuttgart: Alfred Kröner, 1994.
- Borcherdt, Hans Heinrich. *Das europäische Theater im Mittelalter und in der Renaissance*. Hamburg: Rowohlt, 1969.
- Fiedler, Florian. “Dezallier D’argenville und seine Bedeutung für die Gartendenkmalpflege.” In *Die Gartenkunst des Barock*, Edited by Michael Petzet, 158-168. München: Karl M. Lipp-Verlag, 1997.
- Förster, Friedrich Christoph. *Friedrich August II., König von Polen und Kurfürst von Sachsen: seine Zeit, sein Cabinet und sein Hof*. Potsdam: Ferdinand Riegel, 1839.
- Grisebach, August. *Der Garten*. Leipzig: Klinkhardt und Biermann, 1910.
- Harsdörffer, Georg Philipp. *Frauenzimmer Gesprächspiele IV Teil*, Nürnberg 1644. Edited by Irmgard Böttcher. Reprint. Tübingen: Max Niemeyer, 1968.
- Hannebo, Dieter und Alfred Hoffmann. *Geschichte der deutschen Gartenkunst, Gärten des Mittelalters*. Band 1. Hamburg: Broschek, 1962.

- _____ und _____. *Geschichte der deutschen Gartenkunst, Der architektonische Garten*, Band 2. Hamburg: Broschek, 1965.
- _____ und _____. *Geschichte der deutschen Gartenkunst, Der Landschaftsgarten*, Band 3. Hamburg: Broschek, 1965.
- Hobhouse, Penelope. 『서양정원사』(*Plants in Garden History*). 최종희/윤상준/고정희 공역. 서울: 대가, 2015.
- Jankuhn, Herbert, Rudolf Schützeichel, Fred Schwind. *Das Dorf der Eisenzeit und des frühen Mittelalters: Siedlungsform, wirtschaftliche Funktion, soziale Struktur. Bericht über die Kolloquien der Kommission für die Altertumskunde Mittel- und Nordeuropas in den Jahren 1973 und 1974*. Göttingen: Vandenhoeck und Ruprecht, 1977.
- Jung-Kaiser, Ute und Annette Simonis. *Die verzaubernde Kunstwelt Ludwigs XIV. - Versailles als Gesamtkunstwerk*. Hildesheim: Olms, 2015.
- Junker-Mielke, Stella. “Der neue Barockgarten am Edelhaus/Römermuseum in Homburg-Schwarzenacker.” In *Barocke Gartenlust, Auf Spurensuche entlang der Barockstrasse Saarpfalz*, Edited by Stella Junker-Mielke, 55-57. Regensburg: Schnell Steiner, 2008.
- Knocke, Helmut. “Chabonnier.” In *Hannoversches Biographisches Lexikon: Von Anfängen bis in die Gegenwart*. Edited by Dirk Böttcher, 84. Hannover: Schlütersche, 2002.
- Landesbetrieb Vermögen und Bau Baden-Württemberg. *Schloss und Schlossgarten Weikersheim Zeitschrift*. Bruchsal: Staatliche Schlösser und Gärten Baden-Württemberg, 2020.
- Merten, Klaus. “Die Baugeschichte von Schloss Ludwigsburg bis 1721.” In *Schloss Ludwigsburg: Geschichte einer barocken Residenz. Silberburg*. Edited by Staatliche Schlösser und Gärten Baden-Württemberg, 6-45. Tübingen: Silberburg-Verlag, 2004.
- Müller-Blattau, Joseph. *Georg Friedrich Händel*. Mainz: B.Schott's Söhne, 1959.

- Münster, Robert. "Die Münchner Hofmusik bis 1800." In *Süddeutsche Hofkapellen im 18. Jahrhundert*. Edited by Silke Leopold and Bärbel Pelker, 367-408. Heidelberg: Heidelberg University Press, 2018.
- Newald, Richard. *Die deutsche Literatur vom späthumanismus zur Empfindsamkeit 1570-1750*. München: C. H. Beck'sche Verlagsbuchhandlung, 1967.
- Peters, Katharina. *Die Hofgärtner in Herrenhausen*. München: AVM, 2011.
- Petzet, Michael. "Die Thetisgrotte in Versailles." In *Die Gartenkunst des Barock*. Edited by Michael Petzet, 27-43. München: Karl M. Lipp-Verlag, 1997.
- Quantz, Albert. *Leben und Werke des Flötisten Johann Joachim Quantz, Lehrers Friedrichs des Grossen*. Berlin: Oppenheim, 1877.
- Rackwitz, Werner. *Georg Philipp Telemann*. Leipzig: Philipp Reclam jun., 1981.
- Rohde, Michael. *Staatspark Karlsaue, Kassel*. Regensburg: Schnell Steiner, 2004.
- Ronald, Clark. "Das Theaterboskett im Grossen Garten Hannover-Herrenhausen." In *Musiktheater im höfischen Raum des frühneuzeitlichen Europa*, Edited by Margret Scharrer, Heiko Laß and Matthias Müller, 175-198. Heidelberg: Heidelberg University Press, 2019.
- Salmen, Walter. *Gartenmusik, Musik-Tanz-Konversation im Freien*, Hildesheim: Olms, 2006.
- Sander, Eckart, Manfred Schneider und Ralf Parino, "Vom Fürstensitz zum Bürgerschloss-Das Saarbrücken Schloss." In *200 Jahre Landkreis Saarbrücken-Von Preussens Rand zum Regionalverband*. Edited by Regionalverband Saarbrücken, 6-17. Saarbrücken: Saarbrücken Regionalverband Verwaltung, 2016.
- Siller, Heidrun. "Sophie, Kurfürstin von Hannover." In *Neue Deutsche*

- Biographie* (NDB). Band 24. Edited by Hans Gunter, 588-589. Berlin: Duncker und Humblot, 2010.
- Steche, Richard. *Amtshauptmannschaft Flöha, Beschreibende Darstellung der älteren Bau- und Kunstdenkmäler des Königreichs Sachsen*. Dresden: Meinhold, 1886.
- Tröger, Otto-Karl. *Der bayerische Kurfürst Max Emanuel in Brüssel. Zu Politik und Kultur in Europa um 1700*. München: Danuvia Druckhaus Neuburg, 1998.
- Valentin, Veit. *Illustrierte Weltgeschichte*. Bd. 2. Köln: Lingen Verlag, 1976.
- Volckmar, Volker. *Aus dem Land der Grafen und Fürsten zu Oettingen*. Wallerstein: Fürstlich Oettingen-Wallersteinsche Gesamtverwaltung, 1995.
- Volkamer, Johann Christoph. *Nürnbergische Hesperides*. Nürnberg: J. C. V. Nürnberg, 1708.
- Wachter, Clemens. *Das Erlangen Schloss: Von der markgräflichen Residenz zum Sitz der Zentralen Universitätverwaltung*. Erlangen: Schmidt, 2005.
- Wagner, Otto. *Fremdenführer von Neustrelitz und Umgebung*. Neustrelitz: Leipziger Verlagsgesellschaft, 1926.
- Whitaker, Ben and Brown Kenneth. 『우리의 공원』(*Parks for People*). 김수봉 역. 서울: 박영사, 2014.
- Zeyher, Johann Michael. *Beschreibung der Gartenanlagen zu Schwetzingen*. Mannheim: Bürgerhofspitals-Buchdruck, Ca. 1820.
- Ziehen Julius, *Das Reisedeicht des Fuersten Ludwig zu Anhalt-Koethen*. Frankfurt: Festschrift fuer Friedrich Clemens Ebrard, 1920.

인터넷 자료

<https://www.ebeleben.de/verzeichnis/objekt.php?mandat=202410> [2022년 8월 6일 접속].

<https://www.spsg.de/tagen-feiern/eventlocation/neues-palais-heckenthe>

- ater [2022년 8월 6일 접속].
<http://www.ms-visucom.de/cgi-bin/ebidat.pl?id=8128> [2022년 8월 6일 접속].
<https://www.tourismus-fulda.de/sehenswuerdigkeiten/parks-und-gaerten/einzelansicht/2/schlossgarten?cHash=3576781d28e37e0a751b7af62675f934> [2022년 8월 6일 접속].
<https://www.jersbeker-park.de/index.php/historisches> [2022년 8월 6일 접속].
<https://gottorfer-globus.de/de/der-barockgarten> [2022년 8월 6일 접속].
<https://www.familie-von-alvensleben.de/geschichte/850-jahre-familiengeschichte/> [2022년 8월 6일 접속].
<https://gartentraeume-sachsen-anhalt.de/de/gartentraeume-parks/schlossgaerten-blankenburg.html> [2022년 8월 6일 접속].
<https://barockschloss-delitzsch.com/barockgarten/> [2022년 8월 6일 접속].
<https://www.grossenhain.de/barockgarten-zabeltitz.html> [2022년 10월 10일 접속].
<https://www.welterbe-mittelrheintal.de/a-probsteigarten-hirzenach> [2022년 10월 10일 접속].
<https://www.trier.de/kultur-freizeit/geschichte/ueberblick/trier-in-der-fruehen-neuzeit/> [2022년 10월 10일 접속].
<https://www.touren.saarland/de/punkt/denkmal/orangerie-blieskastel/61542789/> [2022년 10월 10일 접속].
<https://www.alleburgen.de/bd.php?id=27984#Historie> [2022년 10월 10일 접속].
<https://www.schlossbruehl.de/schlosspark-bruehl/> [2022년 10월 29일 접속].
<https://www.duesseldorf.de/stadtgruen/park/schlosspark-benrath.html> [2022년 10월 29일 접속].
<https://www.kleve.de/wirtschaft-tourismus/tourismus/sehenswert/historische-gartenanlagen> [2022년 10월 29일 접속].
https://cdn.netletter.at/sbl-mv/media/download/2009.02.09./1234184992.pdf?d=Flyer_Schlossgarten_Schwerin.pdf&dc=1421252406 [2022년 10월 29일 접속].

<https://www.blueba.de/en/history.html> [2022년 11월 6일 접속].

<https://www.celle.de/Celle-entdecken/G%C3%A4rten-Parks-Gr%C3%BCnanlagen/Franz%C3%B6sischer-Garten.php?object=tx,2727.5&ModID=7&FID=2092.79.1&NavID=2727.60&La=1> [2022년 12월 4일 접속].

<https://www.residenz-wuerzburg.de/deutsch/garten/geschichte.htm>
[2022년 12월 28일 접속].

<https://www.schloesser-schleissheim.de/deutsch/hofgarten/gesch.htm>
[2022년 12월 28일 접속].

<https://www.schloss-nymphenburg.de/deutsch/park/index.htm> [2022년 12월 28일 접속].

https://de.wikipedia.org/wiki/August_der_Starke [2023년 2월 13일 접속].

국문초록

바로크 독일 정원에서 생성된 음악문화

조 연 숙

프랑스 왕실과 하노버 궁정과와 정략결혼으로 인한 친분으로 바로크 독일 정원의 대표성을 띤 헤렌하우젠 정원은 화려한 베르사유 궁정의 정형화된 정원을 모델로 탄생하고 이에 따른 정원의 음악문화도 수용한다. 하지만 동시에 이탈리아의 시 문학과 오페라도 독일 정원은 받아들이면서 양국 정원의 음악문화를 독일 정원에 적합한 음악문화로 생성시키고 노천극장과 정자를 건립해 바로크 독일 정원의 특별함을 보여준다. 이를 기반으로 독일 내에 계속 바로크 정원들이 들어선다. 그리고 정원 무대에 오페라가 상연되는 궁정 연회는 정치적 서열이 높은 귀족들의 정치적 관계를 아주 밀접하게 만들어주는 고급 정원 문화행사이다. 따라서 오페라는 귀족들의 출생과 생일, 결혼식, 대관식, 군사적 승리 등을 기념하기 위한 일련의 정원축제에 활용되면서 내빈과 외빈에게 최고의 정치적 그리고 사교적 효과를 가져다주는 '사회적 매개물'로 '문화적 자본'을 축적하게 한다. 동시에 귀족들이 교양으로 배워야 할 문학, 연극 그리고 음악이 녹아 있는 오페라 장르는 그들 간의 고급대화를 유도하게 하며 친목을 다지게 하여 결국 사회적 관계망을 넓히는 수단으로 정원에서 생성된 음악문화의 또 다른 사회적 의미를 낳는다.

Abstract

Music Culture Generated by German Garden in Baroque

Cho, Yeonsook

The standardized garden of Herrenhausen in Germany was created as a model for the formalized garden of the magnificent Versailles court and the musical culture was also accepted accordingly. But simultaneously, however, with the adoption of Italian poetry and opera, the garden music culture of both countries was created as a music culture suitable for the German garden structure and as a special feature an open-air theater and an pavilion were built in their own garden. Baroque gardens continue to be built in Germany on this basis. The court feast, during which operas are performed on the garden stage, is also a high-class cultural event in the garden, which makes the high aristocrat's political ties very close. Therefore, the opera is used at garden parties of the nobility and accumulates cultural capital as a social medium that brings the best political and social effects to internal and external guests. Simultaneously, the opera genre, which contains literature, theater, and music, that nobles should learn as liberal arts, induces high-level conversations among them. And that builds friendships and eventually creates a different social meaning of the musical culture created in the garden as a means of expanding social networks.

[논문투고일: 2023. 02. 28]

[논문심사일: 2023. 03. 19]

[게재확정일: 2023. 03. 27]